

2024 Vol.22

University Innovation Support Project NewsLetter

대학혁신지원사업 뉴스레터

www.uispc.org



CONTENTS

대학혁신지원사업 뉴스레터

2024 Vol.22

발행일 | 2025. 1. 10.

발행인 | 송창수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장

발행처 |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부산대학교 생물관 106호

TEL. 051)510-7905 FAX. 051)510-1118

E-mail. uispc@pusan.ac.kr

www.uispc.org

인쇄 | 대양프린팅

기고문

04 멘토링을 통한 교수자로서의 성장과 연구 네트워크 확장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_ 박영수

06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한 소고(小考)

한국성서대학교 전략기획실 실장_ 권경만

성과사례

10 한·중 공동 교육과정 학생 교류 활동

강남대학교 대외교류센터 팀원_ 최명석

14 고신대학교, 스스로 설계하다! 자유설계인정제

고신대학교 교무지원팀 담당_ 박시은

18 전공 심화학습을 지원하는 ‘우수연구회’

동서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원_ 조보람

22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글로벌 혁신의 축제, 동아대학교 「International Day」

동아대학교 국제교류과 국제지원팀장_ 박현주

26 재학생의 글로벌 전공 실무 역량강화를 위한 선택

글로벌 스탠다드 역량강화 프로그램

영산대학교 와이즈인재개발원 담당_ 남상준

30 전공자율선택제 성공을 위한 교수진들의 지혜, ‘EU-Think Tank’에서 찾다!

을지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직원_ 강다영

34 VISION Communitas 대학발전 성과관리·ESG 워크숍

인천가톨릭대학교 기획평가팀 계장_ 오선미

38 차의과학대학교, 미래형 교육정책 개편을 위한 미래교육기획단 운영

차의과학대학교 교육혁신센터 주임_ 민재홍

42 차세대 디지털 환경(Next-Generation Digital Learning Environment: NGDE)

기반의 교수-학습 생태계 구축을 위한 미래형 교수-학습 모델 개발

포항공과대학교 교육혁신센터 선임 연구원_ 이동희

46 Quiz Wars를 통해 재미도 잡고! 학생 참여도 높이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지원팀 담당_ 김수현

50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문화콘텐츠 메이커스’ 프로그램 운영

한림대학교 박물관 직원_ 송재희

54 대학의 사회·경제적 영향력 측정 및 Hansung Impact Report 발간

한성대학교 한성미래연구센터 센터장_ 황영아



학생사례

- 58 중국에서 던진 '왜(Why)'라는 질문, 그 답을 함께 나눈 사람들
계명대학교 광고홍보학과 학생_ 유지연
- 62 하브루타 공부법: 대화 속에서 발견하는 학문과 성장
서원대학교 영어교육과 재학생_ 이민주 / 최나래
- 66 함께하는 배움, 함께 자라는 꿈: 교육기부단 이야기
성결대학교 유아교육과 학생_ 흥리아
- 70 INNO 모니터링단을 통한 사업기획 및 운영 경험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대학혁신사업단 INNO모니터링단 (사업기획팀) 재학생_ 최재혁
- 74 GPS팀 멘토링
조선대학교 기초교육대학 자유전공학부_ 오지윤
- 78 서로에게 멘토가 되어주는 멘토링
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재학생_ 정선영

행사소식

- 82 지역사회 연계 봉사활동 “2024 사랑의 김장 나눔”
강남대학교 글로컬사회공헌센터 팀원_ 이수연
- 86 2024-2 숙명행복성장주간 대학혁신단 부스 참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혁신단 직원_ 문정은
- 90 2024 우석대 [Self-Mapping 공유 Day] 홍보부스
우석대학교 역량개발인증센터 담당_ 김소원
- 94 조선대학교, 2024 하반기 대학혁신지원사업 5개 권역 대학 간
공유·협력 혁신포럼 개최
조선대학교 대학혁신사업지원단 행정지원팀 팀장_ 윤경원
- 98 지역사회 봉사 프로젝트:
성북 청소년 축제 Y.O.P(Youth Only Project) 페스티벌 ESG 부스 운영
한국성서대학교 혁신사업단 직원_ 지수빈

기고문

Contributions

멘토링을 통한 교수자로서의 성장과 연구 네트워크 확장



박영수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국민대 멘토링 프로그램] 교원의 경력, 수준, 성취도에 따른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목적 : 신임교원의 학교 적응 및 교수역량과 연구역량 함양

운영 : 신임교원은 교내 전임교원과 함께 수업운영, 연구, 학생지도의 주제로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여 정보 및 노하우를 공유

성과 : 학생 이해를 통한 효과적인 상담 및 지도, 강의 질 개선, 우리 대학 특화 교수법 개발 및 연구 모임 활성화를 위한 기초 마련

■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운영된 멘토링 프로그램의 가치

국민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는 교수와 학생의 교수-학습활동이 효과적, 효율적, 매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세부과제의 일환으로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지난 학기에 저는 국민대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멘토로 계신 최대현 교수님과 멘토링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신임교원으로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멘토 교수님의 풍부한 경험과 조언은 교육과 연구의 기반을 다지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이 과정을 통해 교수자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기고에서는 제가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주요 성과와 배움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한 세 가지 변화

첫째, 교육 현장에 빠른 적응을 돋는 실질적인 지원이었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신임교원인 멘티 교수가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교수로 첫발을 내딛는 저에게 학교의 시스템과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일은 큰 과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멘토 교수님은 학교의 운영 방식, 교과과정, 학생 특성 등 실질적인 정보와 조언을 아낌없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경영대학의 교과과정 운영이나 학과 내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학생 지도의 방향성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으며, 수업 운영과 학생 특성 이해를 통한 맞춤형 교육 전략 수립에 있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둘째, 학술 네트워크 확장과 학문적 협력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저는 학문적 및 직업적 네트워크를 크게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멘토 교수님과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바탕으로 학부 내외 다양한 교수님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었고, 이를 통해 동료 교수들과 다양한 연구 아이디어를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잠재적인 연구 협력 기회를 모색하며 네트워크를 확장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저의 교수 생활에서 중요한 자산이 되어, 향후 학문적으로 다양한 연구자들과 협력하고 학제간 융합연구 가능성 모색 등 발전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역량의 체계적 강화로 연구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연구 전략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멘토 교수님은 연구업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성과를 높이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경영대학 내에서 실제로 진행된 융합연구 사례, 산학협력 프로젝트 사례를 기반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효율적으로 성과를 관리하는 노하우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조언은 제 연구 활동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제가 연구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계하며,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되었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의 진정한 가치는 단기적 성과를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멘토링을 통해 얻은 배움과 지식은 제가 앞으로 학자로서 성장하고, 교육자로서 역량을 강화하는데 귀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형성된 동료 교수님들과의 네트워크는 향후 학문적 협력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대학 혁신 지원 사업 프로그램이 고등교육 혁신의 중심축으로서 대학의 미래를 밝히는 등 불이 되기를 바라며, 저 역시 멘토로서 후배 교수들에게 의미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수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멘티 교수의 한마디]

“멘토링 프로그램은 단순한 적응 지원을 넘어 교육자로서의 비전과 열정을 키우는 귀중한 여성이었습니다. 특히 경영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조언들은 교육과 연구 모두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멘토 교수의 조언]

“멘토링 프로그램은 대학 교원으로서의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직접 듣고 공유할 수 있어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팁을 전달할 수 있으며, 개인 맞춤형 조언을 통해 학교 전반의 생활에 대해 개별적이고 자세한 사항들을 공유할 수 있어 학교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학부(과)내 동료 교수님들 및 타대학 교수님들과의 모임 등을 통해 앞으로 연구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 최대현 교수

현장의
목소리로 보는
멘토링의 가치

기고문

Contributions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한 소고(小考)



권경만

한국성서대학교
전략기획실
실장

대학가에 춘투(春鬪)라고 불리우는 등록금 투쟁의 불길이 사라진 지 벌써 오래이다. 2011년도부터였던가? 등록금 동결이 되기 시작한 때가 말이다. 이제 연말이 되면 모든 대학은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에 들어간다.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소규모 대학 입장에서는 주요 수입원인 등록금을 동결한 채 빠듯한 살림살이로 내년도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이러한 때일수록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에 대한 의지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한국대학신문(2024.2.20)의 보도에 따르면 2024년 4년제 대학 등록금 인상 대학은 총 26개교였다. 대학 190개교 중 136개교(71.6%)가 동결, 총 26개교(13.7%)가 인상했고, 사립대학 5개교(2.6%)가 인하, 미확인대학은 22개교(11.6%)였다. 지난해(2023년)의 경우 4년제 대학 190개교 중 169개교(89.0%)가 등록금을 동결하고, 사립대 9개교, 국공립대 8개교 등 총 17개교(9.0%)가 인상했다. 기사는 현재 반값등록금 정책은 이미 정책목표를 달성하였고, 대학은 등록금 이상의 교육비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는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마무리되고 있었다.

현재 정부는 반값등록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반값등록금 정책은 2012년에 ‘소득연계형 등록금부담 완화정책’으로 시작하여 소득수준별로 장학금 지원을 차등화하고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반값등록금 정책 시행 후 국가장학금 예산은 2022년 4조 6,567억원 수준 정도로 매우 크게 확대되어 왔다(교육부, 2021.12.3.*). 국가장학금의 종류는 Ⅰ 유형, Ⅱ 유형, 다자녀, 지역인재로 구분하는데 특히 Ⅱ 유형의 경우 대학의 등록금 인하 노력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교육법 제11조’에 근거하여 등록금 인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 유형을 받기 위해 등록금을 동결 내지 인하할 수 밖에 없다.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 시행(2012년) 이후 사립대학의 재정 변화는 어떠할까? 이와 관련하여 문태열·차성현(2022)**의 연구를 통해 2011년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사립대학의 재정 수입·지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2020년의 사립대학 수입·지출 총액 규모는 2014년 이후 최근 7년간 학교당

* 교육부(2021.12.3.). 교육부 2022년 예산 및 기금 89조 6,251억원 국회 확정. 보도자료.

** 문태열·차성현(2022). 반값등록금 정책에 따른 사립대학 재정 구조 변화 추이: 대학 규모별·지역별 계정과목의 구성비 변화. 지방교육경영, 25(3), 195-219.



**대학의 등록금 동결
내지 인하 정책은
등록금 의존율이 큰
사립대학의 경우 더 큰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평균 75억원 감소하였고 사립대학은 재정 수입 감소분을 대응하기 위해 관리운영비와 교원연구비 축소, 교내·외 장학금을 제외한 학생경비, 입시관리비, 유형고정자산매입 등의 지출을 감축하였다. 또한, 각종 기금 등의 적립금을 인출하거나 미사용전기이월자금 등을 통해 부족한 재정 수입을 보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학의 등록금 동결 내지 인하 정책은 등록금 의존율이 큰 사립대학의 경우 더 큰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립대학의 수입 규모가 실질적으로 감소하게 되더라도 인건비, 관리비, 장학금 등의 지출은 증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소규모 대학은 재정 상태가 중·대규모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제언으로 국고보조금 규모 확대,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 제정과 함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는 주장을 하였는데 필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올해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은 어떻게 단행되었을까? 필자는 2024년 등록금 인상 대학 중 비수도권 대규모 사립대학(A대학)과 수도권 소규모 종교계열 대학(B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학교 관계자와 학생의 입장을 들여다보았다. 학교 관계자는 장기간 지속된 등록금 동결로 인한 교육환경 개선 투자가 어려웠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들어 학생들의 동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었다. 또한 학생의 요구를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였다.

소비자 물가상승률도 최근 3년간 평균 3.76% 상승하고, 2010년부터 2022년까지 누적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5.3%임에도 등록금이 2010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14년 이상 동결된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다. 최저임금 인상,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해 교육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2024학년도에는 등록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다... 학생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가장 시급한 부분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답변하다. (A대학 학교 관계자)

물가상승률, 교직원 급여 동결을 근거로 학교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안의 경우, 학교는 반드시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답하다. (B대학 학교 관계자)

이에 대해 학생위원들은 회의 초기에는 등록금 인상에 강경하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결국 등록금 인상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등록금 인상에 대한 조건으로 장학금 보전과 학생 요구에 대한 대학 측의 전적인 이행 등을 제시하고 있었다.

단과대학 학생회장 일동이 등록금 인상에 대하여 동결 의견을 제시하다. 학생위원 측에서 전체 학생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진 후에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을 제안하다. (A대학 학생위원)

교내장학금 인상과 등록금 인상에 따라 지원이 끊기는 국가장학금 II유형 장학금에 대해 학교측에서 보전을 약속한다면 2024학년도 등록금 5.5% 인상을 수용한다고 말하다. 학교측에서 인상하려고 하는 5.5%라는 수치가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님을 강조하고 학우들에 대한 학교의 지원이 늘어나게 된다면 내년도 등록금 5.5% 인상을 수용한다고 말하다. (B대학 학생위원)



대학 등록금 문제는

단순히 재정 문제가 아닌

교육의 질 저하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A대학은 약 4주(회의 횟수 3번), B대학은 5일(회의 횟수 2번)만에 등록금 인상안이 통과되었는데 그 사이 학생들과 비공식적으로 어떤 논의가 진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학의 규모가 클수록 논의도 길었음을 엿볼 수 있었다. 한편 2년 연속 등록금을 인상한 동아대의 경우 2024년도에는 한 달 동안 총 7차례 걸친 치열한 논의 끝에 등록금 인상을 단행했다. 이처럼 등록금 인상은 지난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합의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었다.

대학 등록금 문제는 단순히 재정 문제가 아닌 교육의 질 저하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대학 재정 약화 시 연구비 축소, 시설 투자 감소, 교수진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해 교육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국제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수한 인재 양성에 한계가 생긴다. 정부는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해야 한다. 등록금 동결이 장기화됨에 따라 대학 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요구된다. 정부는 대학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제 2주기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 2025년 2월에 종료된다. 사업 기간이 3년인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전폭적으로 개선하여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 체계 구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대학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 가운데 교육적 여건이 서로 다른 '수도권 vs. 비수도권' 대학은 물론 '대규모 vs. 중규모 vs. 소규모' 간 정책적 고려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정부는 대학의 질적 혁신을 위해 등록금 인상은 물론 지속적인 정부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한 정책 설계를 세심하게 하길 바란다.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한

소고(小考)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한·중 공동 교육과정 학생 교류 활동



최명석

강남대학교
대외교류센터
팀원

강남대학교 대외교류센터에서는 지난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 글로벌역량강화캠프 중국편을 실시했다. 강남대학교 글로벌역량강화캠프는 학생 참여형 창의융합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킹 체험형 비교과 프로그램이다. 이번 캠프는 한·중 공동 교육과정 학생 교류 활동의 일환으로 본교 실버산업학과 20명의 재학생들이 중국 자매대학인 린이대학교를 방문하여 전공 관련 지식들을 활용한 실제적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교류 활동을 통해 전공에 대한 자부심과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린이대학교는 중국 산동성 정부의 관리하에 1941년 린이시에 설립된 산동성 인민정부소속 종합대학교이다. 강남대학교와 중국 린이대학교는 2014년부터 실버산업학과 한·중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실버산업학 분야의 인재 양성에 협력해오고 있다. 매학기 강남대학교 교원이 중국 린이대학교에 파견되어 강의를 진행하며, 중국 린이대학교 한·중 공동 교육과정 학생들은 강남대학교 복수학위과정을 통해 우수한 교과과정을 학습하고 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한·중 공동 교육과정(린이대 한·중 합작과정) 실버산업전공 학위를 취득한 학생은 300여 명이다. 그리고 강남대학교는 중국 린이대학교와 함께 중국 산동성 내 린이세종학당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내 한국어 전파 및 우수한 글로벌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올해는 강남대학교와 중국 린이대학의 한·중 공동 교육과정 10주년이 되는 해로 향후 양교의 더욱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위해 중국 린이대학에서 학생 교류 행사가 마련되었다.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중국 린이대학의 곳곳을 탐방하고 린이대학의 실버산업학과 수업 견학, 수업 실습, 문화탐방, 기념행사를 함께하며 다양한 교류 활동도 펼쳤다.

첫째 날,
여정의 시작

이른 아침부터 출국 준비를 마친 캠프 참가자들은 설렘을 안고 중국 칭다오로 떠났다. 칭다오 도착 후 린이까지 약 3시간 반의 이동 끝에 일행은 호텔에 짐을 풀고 2일차에 있을 학생 교류 활동 준비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환영 만찬에서는 이번 캠프의 지도교수인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의 이성철 교수와 린이대학교의 법학원 실버산업학전공 우명강 교수, 맹상치 교수와 교류하며 활발한 논의와 교류의 장을 펼쳤다.



**둘째 날,
린이대학교 방문과
학생 교류**

린이대학교에서의 교류 둘째 날 아침, 린이대학교의 학교 투어로 일정을 시작했다. 린이대학교 캠퍼스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며, 약 4만여 석의 스타디움, 창업존, 도서관 등 인상적인 주요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그 웅장한 규모와 최첨단 시설에 감탄하며 캠퍼스를 돌아보았다. 이어진 환영식에서는 린이대학교 장리푸 부총장님을 비롯하여 법학원 실버산업학전공과 국제교류처 관계자들이 참가해, 강남대학교 학생들을 열렬히 환영하며 뜻깊은 시간을 만들어 주었다.



이후 학생들은 린이대학교 법대의 교외협력기지인 '비공유제경제사법보호(린이)기지'를 방문해 중국 민간기업의 창업부터 폐업에 이르기까지 법적 지원과 보호를 받는 과정을 배우고, 법적 현황에 대해 심도 있게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오전 캠퍼스 투어와 환영 행사를 마친 후, 오후에는 양교 실버산업학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한·중 학생 교류 활동이 진행되었다. 강남대학교 20명 한국 학생들과 린이대학교 54명 중국 학생들이 참여해, 실버산업 전공지식을 공유하며 서로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교류 활동을 마치고 이어서 중국 학생들과 함께 린이대의 학생 식당에서 다양한 음식을 나누고, 서로의 일상과 꿈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짧지만 깊이 있는 교류 활동을 마치며 모두가 아쉬워했지만,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공식 일정을 의미 있게 마무리했다.



린이의 역사와 문화 체험



셋째 날, 학생들은 린이 시내 투어에 나섰다. 서예가 왕희지 생가, 린이 죽간 박물관, 랑야고성 등 린이의 주요 유적지를 탐방하며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느끼고, 한중 양국이 오랜 시간 교류해 온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칭다오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며



마지막 날, 우리 일행은 칭다오 공항 출국 전에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칭다오 시내 투어와 칭다오 맥주박물관에 들러 칭다오 맥주의 역사와 제조 과정, 시음의 시간 등을 가지며 이번 글로벌역량강화캠프 중국편 여정을 마무리하고 전원 무사히 귀국 비행기에 올랐다.

미래를 향한
한중 협력의 발판

이번 글로벌역량강화캠프 중국편은 단순한 해외 탐방을 넘어, 학생들이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인사이트를 얻는 기회가 되었다. 한·중 학생 교류와 문화탐방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았다. 향후 양교가 더욱 활발한 학생 교류 활동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앞으로도 강남대학교의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글로벌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고신대학교, 스스로 설계하다! 자유설계인정제



박시은

고신대학교
교무지원팀
담당

추진 배경 및 목적

자기주도적 설계를 통한 혁신적인 학사제도

고신대학교는 재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대학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 혁신을 위한 탄력형 학사제도 혁신을 구현하는 K플렉스 학사제도 중 학생주도 교육과정인 자유설계인정제는 자신의 진로 및 전공역량과 관련된 관심 분야에 대해 자기주도적으로 커리큘럼을 계획하고 이에 따른 학습 및 평가하는 학사제도이다. 자유설계인정제는 고신대학교에서 2019년 첫 시범 운영 되었으며 대학혁신지원사업 2주기 (2022~2024년)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매년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자유설계인정제의 운영 및 지원이 고도화 될 수 있도록 교육혁신원 산하 미래교육혁신센터 및 교무지원팀에서는 매학기마다 교내 포스터 제작과 카드뉴스를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공모와 홍보에 힘쓰고 있다.



▲ 2024 자유설계인정제 홍보 포스터 및 카드뉴스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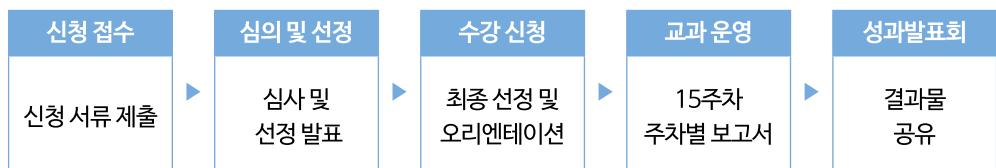
■ 운영 방식

15주차 자기주도적 설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 전략

자유설계인정제의 모집대상은 2학년 이상 재학생으로서 최소 2인에서 최대 6인 이내 구성된 팀이 15주 동안 참여할 수 있으며, 졸업 전 최대 6학점까지 이수가 가능하다. 매주 팀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주차별 학습 보고서를 작성해 봄으로써 학생들의 관심 분야를 스스로 설계하고 창의적인 문제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기존의 수업형태와는 달리 새로운 형태와 방법으로 활발히 지원하고 있는 자유설계인정제는 교외 다양한 장소에서 활발한 체험 학습이 가능하도록 활동비를 제공하며, 교내에서는 지속적인 팀별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전공 강의실을 구축하여 실천적 학습 경험의 장을 마련해주고 있다. 이러한 차별화 된 수업 방식과 전략을 통해 재학생들의 전공 역량 강화 뿐만 아니라 유연한 학사제도를 개발하는 발판을 마련해준다.

● 2024 자유설계인정제 교과 공모 절차



■ 운영 현황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을 지원해주는 학과의 모습

자유설계인정제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대표사례로 1주기에 이어 2주기(2022~2024년)까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다양한 학과에서 참여하고 있다. 2022년에는 7개학과 재학생 64명이 참여하여 산업위생 실무교육, 보건관리, 실무 연구, 국가자격증 취득, 작업치료사 진로 탐색, 식품 조리 실무, 광고 마케팅 연구 등 각 학과의 특성을 반영한 전공·교양 역량 및 학습 경험을 지원하였다. 2023년에는 다양한 학과들이 참여하여 진로와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였으며, 2024년에는 지속적으로 참여한 학과의 선·후배들의 교류와 학습 정보 교환이 이루어짐으로써 학생들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이후 학생들의 학습 경험은 성과발표회를 통해 성과물을 공유하기도 하였으며, 학과별 전공 특성을 안내하여 타 학과의 교류도 원활해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2022-2024 자유설계인정제 교과 운영 현황

구분	2022	2023	2024
주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 실무 연구 • 광고 마케팅 가이드 연구 • 대기 환경 분석보건 • 미용 자격증 취득 • 뷰티 컨설팅 전략 방안 • 산업위생 실무 교육 • 식품 조리 실무활동 • 어학 자격증 • 유아교과 교수법 개발 • 작업치료사 진로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SAC 공모전 출품 • 독해와 주해 학습 • 메이크업 실습 활동 • 사회복지 활성화 방안 • 생명과학기술 활성화 방안 • 임상 실습 및 기관 체험 • 임상 용어 단어장 제작 • 위생사 자격증 취득 • 작업치료 활동 분석 • 취업 전략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 컨설팅 전략 • PBL 학습법 탐구 • 디지털 마케팅 연구 • 언어 치료사 진로 탐색 • 연극 활동집 제작 • 위생사 자격증 취득 • 작업치료 실무 활동 • 전공 심화 학습 • 해부학 탐구 학습
참여 학과	광고홍보학과 외 6개 학과	의생명과학과 외 7개 학과	유아교육과 외 6개 학과

운영 사례

학과의 특성을 살린 문화예술형 활동 지원

유아교육과는 학과의 전공 특성을 살린 예비 유아 교사로서의 진로 탐색을 활동 목표로 하여 교육적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한 다양한 교과 학습 활동을 진행하였다.

특별히 유아교육과의 필수 과정인 학술제를 위한 동극 활동 및 연극 활동집 제작을 중점으로 실제 유아교육 현장에서의 이뤄지는 교육 내용을 학생들이 직접 고안하고 제작하여 극을 완성하고 제작한 대본을 토대로 공연을 선보이는 문화 예술형 활동을 주도하였다. 완성된 학습 결과물로는 호랑이와 나그네, 견우와 직녀, 토끼와 자라, 구두장이와 꼬마요정, 피노키오, 신데렐라, 백설공주, 알라딘, 오즈의 마법사, 토이스토리 총 10 개의 극이 담긴 대본집을 완성하였으며, 실제 부산 동래문화회관 일원에서 주관하는 “2024 동래문화교육특구 페스티벌”의 지역 행사 참여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과 활동을 선보이기도 하였다.

자기주도설계 수업을 통하여 예비 유아교사로서의 역량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교과 활동을 통한 협력과 소통의 능력을 기르며 고신대학교가 추구하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소양을 함양시킬 수 있고 적용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 외에도 자유설계인정제는 다양한 학과의 참여를 통하여 학과의 전공 역량에 필요한 맞춤형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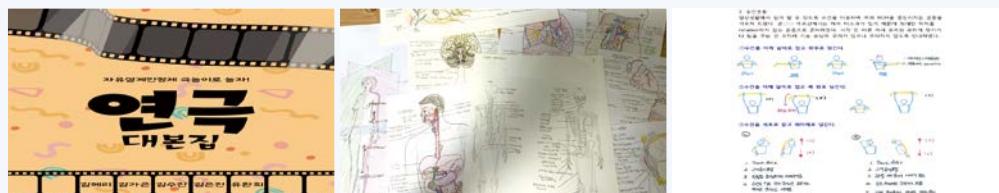


▲ 2024년 1학기 유아교육과 외부기관 방문(2024.05.10.동래문화회관 마당)

토론하며 탐구하는 교내 활동



자기주도 학습 결과물



지역과 연계한 현장 실무 활동



▲ 2024년 자유설계인정제 참여한 활동 모습

운영 성과

다양한 결과물 도출 및 운용 확대 기반을 마련한 성과발표회



▲ 2023년 자유설계인정제 성과발표회

매 학기 진행되는 자유설계인정제 성과발표회에서는 학생들이 지난 15주간의 학습 과정과 탐구한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자신감과 도전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교직원도 함께 성과발표회 및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유연한 학사제도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고신대학교는 앞으로도 자유설계인정제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전공·교양에 도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기존의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커리큘럼을 계획하고 현장과 연계하며 다양한 실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고자 한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전공 심화학습을 지원하는 ‘우수연구회’

**조보람**

동서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원

■ 추진 배경 및 목적

동서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는 재학생들의 학습지원 내실화를 위해 3-Step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맞춤형 학습 적응을 위한 기초학습, 협동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성장, 그리고 우수 학습경험을 발굴하는 심화학습으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우수연구회’는 전공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심화학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습공동체 경험자들을 선발하여 운영하는 심화학습 공동체이다. 전공심화 학습을 통한 문제해결력 향상과 지식 탐구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하며, 지도교수와 선후배 간의 네트워크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 운영 내용

우수연구회는 지도교수와 함께하는 학습공동체로, 재학생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예산을 받아 연구 활동을 수행한다. 대표적인 심화학습 프로그램인 우수연구회는 전통 있는 교내 연구회 활동을 통해 심화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선후배 간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2024년 연구회 모집에서는 전년도 대비 개선 사항과 운영 목표를 1차 평가하고, 내부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우수연구회를 선발하였다. 연구회 활동은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되며, 단기 운영과 장기 운영으로 구분하여 방학 중에도 중단없이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 추진성과

2024년에는 총 16팀(259명)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신청 인원과 참여 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우수연구회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드론보안 취약점 분석, 아이디어 공모전 참여, 애니메이션 작품 제작, 벼추얼프로덕션 작품 제작 등 다양한 전공 분야의 심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전공 분야 우수연구회는 실무 중심의 창의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운영 연도	2022	2023	2024
참여 팀	9	13	16
참여 인원	132	188	259

■ 향후 계획

전공 심화학습을 위한 연구회 활동의 확산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수적이다. 교수학습개발센터는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2024년 우수연구회 성과발표회를 개최하여 우수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선정된 팀에게 시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연구회 선배들의 열정과 관심이 후배들에게 꾸준히 계승되어 우수연구회 참여가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 우수연구회 지원 성과

동서대학교
건축공학과

‘스마트 건설융합 혁신
R&BD 연구회’

부산광역시 주최 ‘2024 부산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주제 : ‘2차전지 폐배터리 산업부산물을 활용한 층간소음 저감 솔루션과
민원저감 월패드 모니터링 시스템’



동서대학교
경찰학과

'대호'

'2024 전국 생활체육 유도대회(KATA)' 일반부에 출전하여 금, 은, 동 수상



동서대학교
관광경영·컨벤션학과

'공연제작연구회
trenoc'

인디밴드 공연 주최 및 주관 '행운을 빌어, 줄게'



동서대학교
컴퓨터공학과

'IAI연구회'

IoT 가전 컨소시엄 공학교육혁신센터 '2024 창의적종합설계경진대회' 은상 수상



동서대학교
정보보안학과

'CNSL'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2024 사이버 시큐리티 해커톤' 우수상 수상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글로벌 혁신의 축제, 동아대학교 「International Day」



박현주

동아대학교
국제교류과
국제지원팀장

■ 추진 배경 및 목적

동아대학교의 「International Day」는 2015년 첫 개최 이후 짧은 기간 내에 우리 대학의 대표적인 국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이 행사를 처음 시작하게 된 이유는 본교 한국인 재학생, 외국인 유학생, 그리고 지역 주민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마당을 만들고자 했기 때문이다. 유학생들은 학교나 지역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기 쉽고, 한국인들도 외국인에게 다가가고 소통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다. 이러한 편견과 거리감을 해소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International Day」가 기획되었다.

「International Day」는 우리 대학의 대학혁신의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단순한 문화 교류를 넘어 교육과 지역사회와의 융합을 이끌고 있다. 다문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대학이 협력하는 열린장을 조성해 왔다. 이번 「2024 International Day」에서도 24개국 출신의 학생들이 전통 음식 부스, 문화 공연, 전시 등을 준비하여, 학내 구성원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장을 마련했다. 특히 유학생들이 준비한 전통 무용과 음악 공연은 참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행사에 대한 지역의 관심과 유대감이 더욱 강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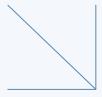
■ 추진내용

International Culture Experience (국제 문화 체험)

유학생들이 한국인 재학생과 지역 주민들에게 자국의 전통 음식을 소개하고자 직접 준비해 부스를 운영했다. 참가국은 총 24개국이었고, 소수 국가의 학생들은 지역 연합 클러스터를 만들어 부스를 꾸몄다. 방글라데시, 유럽연합(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폴란드), 한국, 우크라이나, 파키스탄, 베트남, 일본, 미얀마, 인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동남아시아(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대만, 필리핀, 러시아, 독일, 중국, 타지키스탄, 싱가포르 등 다양한 국가의 음식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음식도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접하기 어려운 우크라이나, 미얀마, 타지키스탄 같은 국가의 음식도 제공되어서 해당

International
Culture
Experience

국제 문화 체험



▲ 행사장 전경



▲ 소통 공간



▲ 외국음식 체험 부스



나라들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였다. 매년 참가하는 중국, 베트남 같은 국가들도 흔히 접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자주 접하지 못한 요리를 준비해 문화 교류의 의미를 더했다.

음식 부스 외에도 각자의 출신 국가의 전통 놀이를 소개하고, 참가자들이 직접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나라끼리 비슷한 놀이가 있기도 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또 다르게 진행되는 놀이들을 보면서 국적은 달라도 함께 어우러져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한국관에서 진행된 전통놀이와 한복 체험 부스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았다. 교과서에서만 보던 한복을 직접 입어본 학생들은 곳곳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열심히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겼다.

추진내용

International Performances (국제 문화 공연)

전문 댄스팀 BASTARZ의 화려한 공연으로 시작해, 사물놀이 공연이 무대의 흥을 돋웠으며, 특히 이번에 처음 참여한 부산예고한국무용팀은 전문성과 젊은 열정을 동시에 보여주며 외국인 유학생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전문 공연팀 사이사이에 이어진 유학생 팀의 공연은 다채로운 전통과 문화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주었다. 베트남 전통 춤, 인도 전통 댄스와 노래, 방글라데시 노래, 콩고 및 네덜란드 노래, 중국 전통 노래와 베트남 팝송 댄스, 인도네시아 노래 등 다양한 국적의 끼 있는 유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공연이 이어졌고, 관객들은 언어가 다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생동감 넘치는 글로벌 문화를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공연 사이에는 제기차기, 랜덤 댄스 배틀, OX 퀴즈, 부산 사투리 퀴즈, “MC를 이겨라” 등 무대 이벤트가 진행되어 관객과 참가자들이 양방향으로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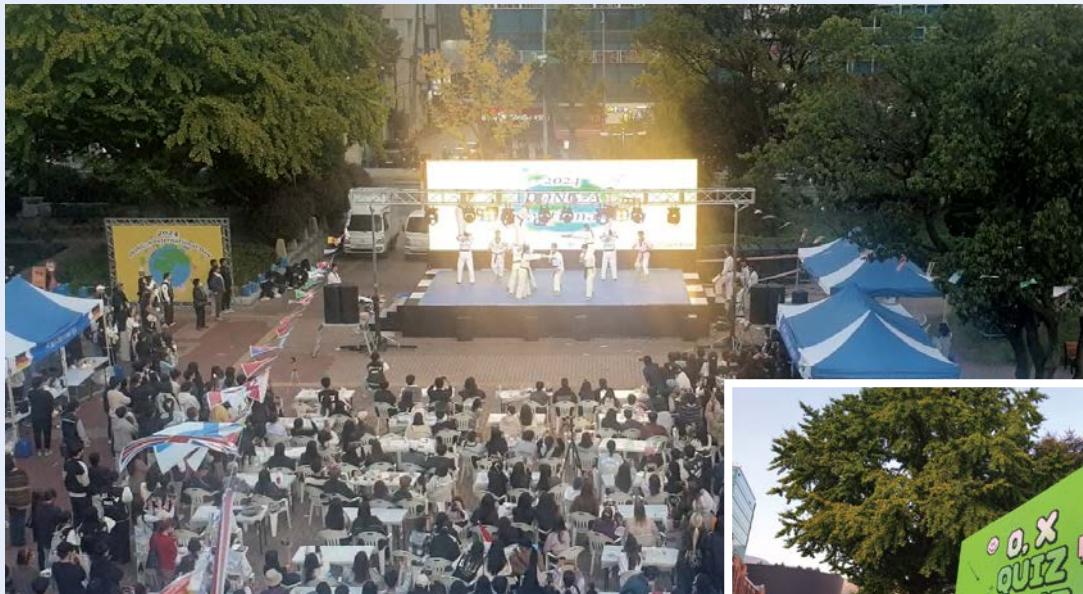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동아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이었다. 동아대학교의 트레이드마크인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은 유학생들에게는 강렬한 인상을, 태권도에 익숙하지만 실제 공연을 볼 기회가 많지 않았던 한국인 재학생들에게는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게 해준 시간이었다.



▲ 전문 공연



▲ 유학생 공연



▲ 태권도 공연

International Performances

국제 문화 공연



▲ 무대 이벤트

III. 추진 성과 및 계획

동아대학교의 「International Day」는 대학혁신의 중요한 모델로,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경험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 왔다. 이 행사는 단순히 학교 축제를 넘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장으로 자리 잡았다. 앞으로도 「International Day」와 같은 행사를 통해 유학생들의 국제적인 시각을 넓히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의 혁신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재학생의 글로벌 전공 실무 역량강화를 위한 선택 글로벌 스탠다드 역량강화 프로그램



남상준

영산대학교
와이즈인재개발원
담당

추진배경

영산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은 글로벌 캠퍼스체제 확산과 글로벌 실습교육 내실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글로벌 스탠다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의 목표는 학생들이 글로벌 직무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의 전공 실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글로벌화된 산업 환경에서 요구되는 직무 능력과 어학 및 문화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전공 분야의 실무 역량을 현지에서 직접 습득하고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게 된다. 한편, 다양한 문화와 전공 직무 관련 업무 환경을 경험함으로써 글로벌 직무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취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돋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주요 배경이다.

프로그래밍 개요



글로벌 스탠다드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영산대학교 재학생들이 글로벌 감각과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돋기 위해 기획되었다. 영산대학교는 YCMP 로드맵을 통해 체계적인 진로·취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혁신적인 글로벌 전공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국제적 감각을 배양하고 해외 실무 교육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글로벌 마인드와 전공 실무 능력을 쌓아 해외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대학혁신지원사업단에서 지원하였다.

1차 프로그램 운영 기간은 2024년 1월 4일부터 3월 2일까지 8주 동안 진행되었고(1개 학과 4명), 2차 프로그램은 2024년 10월 12일부터 12월 8일까지 8주간 진행될(2개 학과 12명) 계획이다. 연수참여 대학으로는 영국의 Westminster Kingsway College가 선정되었다.

글로벌 현장실습 프로그램 체계도

대상 선발



전공교육혁신원을 통한 우수 학과 및 대상자 선발

사전 교육



파견 전 어학, 인성, 직무, 문화, 안전 교육을 통해 현지 적응 준비

학부모 설명회



연수생 학부모를 위해 영국 현지 대학 국제처장 내한 설명회

현지 연수(8주)



현지 프로그램 실시(미용예술학과, B&B전공(Bakery & Beverage))

사후 관리



귀국 후 멘토링 프로그램, 취업 특강 등 취업지원 교육 실시

취업지원



참가자 역량 측정 및 글로벌 역량 지원

본 사업단은 영국 런던의 최대 고등교육기관 연합체인 캐피탈시티 칼리지그룹(Capital City College Group)과 협약을 맺고, Westminster Kingsway College 등에 재학생을 위한 교육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Westminster Kingsway College는 고든 램지, 제이미 올리버 등 글로벌 스타 셰프들을 배출한 명문 요리학교이고, 노경희, 안유정 동문 등 B&B전공 재학생 4명은 지난 겨울방학동안 Westminster Kingsway College에서 페스트리 코스(pastry course) 교육연수를 받았다.*

영산대학교 글로벌 스탠다드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주요 운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전 어학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기초 영어 능력을 강화하여 해외 연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교육은 여름 방학 기간 진행되었고, 미용예술학과와 B&B 전공 학생 12명을 서류와 면접 평가로 선발하여 우수한 인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영국 연수 전 현지 대학 국제처장을 초청하여 학생과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해외연수에 대한 궁금증과 염려를 최소화시켰다. 선발 학생은 영국으로 파견되어 Westminster Kingsway College에서 제과, 제빵, 음료 기초 실습 및 조리 이론 교육을 받았으며, City & Islington College에서 헤어 및 뷔티 클래스에 참여하여 전공과 연계된 실무 경험을 쌓았다. 또한, Salon International Show에 참가하여 국제적인 헤어 및 뷔티 트렌드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글로벌 전문성을 향상시켰다.

본 프로그램의 정량적 성과로는 글로벌 스탠다드 프로그램 운영이 확대되면서 참여 인원수가 4명에서 12명으로, 참여 학과가 1개 학과에서 2개 학과로 확대되었고, 연수 기회 확대를 통해 학생들의 해외취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효과를 보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은 글로벌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졸업 후 국내 최고급 호텔 페스트리 부서에 취업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정성적 성과 측면에서는 참가 학생들이 국제적인 교육 환경에서 전공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요구되는 기술과 전공 실무 능력을 억혀 해외 취업에 대한 자신감과 진로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 운영 성과 및 학생 소감

운영 성과

글로벌 스탠다드 프로그램을 통해 영산대학교 학생들이 해외취업 기회를 보다 넓힐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참여 학생들의 글로벌역량지수는 70% 이상 상승하였고, 높은 교육만족도(2023년 만족도조사 결과 5.0/5.0점)를 바탕으로 2023년 1차 프로그램에 이어 2024년 2차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참여 학과는 1개 학과에서 2개 학과로 확대 운영하게 되었다.

* “스타 쉐프 꿈, 현재진행형” B&B 동문 ‘눈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전공 분야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실무 역량을 습득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영산대학교 재학생들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 실무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학생들의 국내취업에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었다.

학생소감(글로벌 스탠다드 프로그램 1기) - 장현주

한국과 다른 시설과 재료를 경험하며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현지 환경에 적응한 후에는 친절한 쉐프님들과 학생들 덕분에 쉽게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연령 제한 없이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배우는 환경이 인상적이었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써버로 일하면서 고객에게 한국 음식 문화를 설명할 수 있어 자부심을 느끼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Bakery & Beverage 전공 학생들



▲ 영국문화원·WKC와 콜라보하여 레시피 개발·프로모션



▲ Bakery & Beverage 이론 수업 과정



▲ Bakery & Beverage 수업 과정



▲ 미용예술학과 학생들



▲ 헤어 및 뷰티 트랜드 실습 과정



▲ 헤어 및 뷰티 트랜드 이론 수업 과정



▲ 미용예술학과 현장기록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전공자율선택제 성공을 위한 교수진들의 지혜, 'EU-Think Tank'에서 찾다!



강다영

을지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직원

■ 추진 배경 및 목적

을지대학교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잠재력을 발휘하고, 창의적인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공자율선택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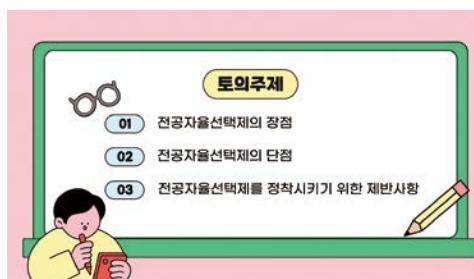
획일적인 교육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교수학습지원센터는 액티브 러닝 방식의 'EU-Think Tank'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

'EU-Think Tank'는 전공자율선택제 도입에 따른 학사 지도, 교육과정 운영, 학생지원 등 변화하는 대학교육에 발맞춰 교수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학생 전공 탐색 및 선택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이는 전공자율선택제 도입 학부 교수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전공자율선택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고, 차별화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운영 내용

'EU-Think Tank'는 교수진이 모여 전공자율선택제의 인식 개선과 교수자 주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교육과정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이다. 'EU-Think Tank' 프로그램은 아래 표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 운영되었다.



▲ 토론 소주제 안내

〈표 1〉 EU-Think Tank 세부 운영 절차

구분	추진 내용	세부 내용
운영방법 소개	토론 소주제 안내	<p>[바이오공학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자율선택제의 장점 - 전공자율선택제의 단점 - 전공자율선택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반사항 <p>[스마트의료정보학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자율선택제의 장점 - 전공자율선택제의 단점 - 전공자율선택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반사항 - 전공자율선택제 환경에서 교수자의 역할 변화 <p>[휴먼서비스학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감 제고 방안 - 전공 설계 지원 방안 - 융합 인재 양성 지원 방안 - 전공자율선택제 환경에서 교수자의 역할 변화 - 전공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랜덤 팀 선정	뽑기를 통한 랜덤 팀 구성 (원활한 토의를 위해 4인 이내로 구성)
	팀 대표 선정	팀 대표 1인 선정
그룹별 토의	토의 방법 안내	그룹 별 소주제에 따른 토의 절차 안내
	그룹 토의 진행	그룹 별 소주제로 30분간 자유롭게 토의
발표	그룹 별 토의내용 발표	팀 대표 교수자가 그룹 내 토의내용 발표
시상 및 폐회	우수 팀 시상 및 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투표를 통한 우수 팀 선정 - 우수 팀 시상 및 폐회

■ 운영 결과

전공자율선택제를 도입한 학부의 교수진 전원이 참여한 ‘EU-Think Tank’는 학부별 1회씩 총 3회 운영되었으며, 참여 교수진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진행한 결과 높은 만족도(4.7/5점)를 달성하였다.

또한 참여 교수진들은 ‘EU-Think Tank’를 통해 위와 같이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였으며, 이러한 의견들은 전공자율선택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피드백으로 활용되었다.

이렇듯 ‘EU-Think Tank’는 교수자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상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전공자율 선택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교수학습지원센터는 전공자율선택제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주도적으로 전공을 탐색하고, 진로를 설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수·학습 지원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전공자율선택제의 장점	전공자율선택제의 단점	전공자율선택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공 탐색 용이• 복수 학위 취득으로 융합 인재 양성• 자기주도 학습 강화• 진로 탐색 용이• 타 전공 학생들과의 협업 능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과정의 유연성 부족• 전공 선택의 어려움• 전공 별 쓸림 현상 발생• 소속감 저하• 전공 지식 부족으로 인해 취업 시 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연한 교육 시스템 구축• 체계적인 진로 상담 제공• 전공 별 로드맵 제공• 교수진의 역량 강화• 행정 시스템 개선



▲ (상)토의 방법 안내 / 그룹 토의 진행
(하)그룹 별 토의 내용 발표

■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EU-Think Tank'는 교수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전공자율선택제의 정착 및 교육 혁신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교수진이 모여 서로의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최적의 교육 모델을 연구 및 개발하여 전공자율선택제 전공 학생들에게 더욱 유연하고 창의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앞으로도 을지대학교는 'EU-Think Tank'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돋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 방안을 개발하여, 궁극적으로 학생 중심의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학생 중심의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이다.



▲ 우수 팀 시상 및 폐회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VISION Communitas 대학발전 성과관리·ESG 워크숍



오선미

인천가톨릭대학교
기획평가팀
계장

추진배경

인천가톨릭대학교는 핵심가치 중 ‘Communitas’를 기본으로 대학 구성원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대학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VISION Communitas 대학발전 성과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대학경영 및 교육 전반의 질 관리와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중장기 발전계획의 성과관리를 위해 4개 분야별로 대학 구성원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2024년 5월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 ‘PHARUS VISION 2030’을 중심으로 대학발전을 위한 성과관리와 ESG 실천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추진내용

워크숍 개요	주 제: 인천가톨릭대학교 VISION Communitas 대학발전 성과관리·ESG 워크숍 일 정: 2024.08.19.(월)~2024.08.21.(수) 장 소: 제주도 서귀포시 참여자: 총장, 대학발전 성과관리위원회 위원
워크숍 내용	[성과관리] 대학발전 성과관리위원회 영역별 소위원회 회의 [성과관리] 고등교육 동향에 따른 대학의 대응 전략 및 성과관리 [교육] 자유전공 신설에 따른 2025학년도 교육과정 방향 점검 [교육] 글로컬대학30을 통한 교육혁신 모델과 해외대학 사례를 통한 교육과정 발전방안 모색 [ESG] ESG 실천계획을 통한 대학 구성원 교육 프로그램-기후위기와 우리들의 자세 [ESG] ESG 실천계획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제주 하늘문화구 생태 환경 보전

추진성과

대학발전 성과관리위원회 영역별 소위원회 회의,
고등교육 동향에 따른 대학의 대응 전략 및 성과관리

- 대학발전 성과관리위원회 상반기 운영결과 및 하반기 운영계획을 공유함
- PHARUS VISION 2030 추진계획 및 성과지표 관리 방안을 모색함
- 대학혁신지원사업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 및 자율성과지표 관리 방안을 논의함

자유전공 신설에 따른 2025학년도 교육과정 방향 점검,
글로컬대학30을 통한 교육혁신 모델과 해외대학 사례를 통한 교육과정 발전방안 모색

-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계획 공유 및 의견수렴을 진행함
- 역량기반 전공 교육과정 혁신 프로젝트 결과 공유 및 의견수렴을 진행함
- 해외 특성화 대학 사례를 통한 우리 대학의 교육혁신 모델을 모색함
- 대내·외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및 학생 충원율 관리 방안을 모색함

ESG 실천계획을 통한 대학 구성원 교육 프로그램,
ESG 실천계획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

- ESG 실천계획 중 'ESG 가치의 대학경영 내재화' 영역의 '03. ESG 관련 교원·직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실행과제를 실천함
- '환경'에 대한 대학 구성원 이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천주교 제주교구 생태환경위원회와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여 환경 보전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 확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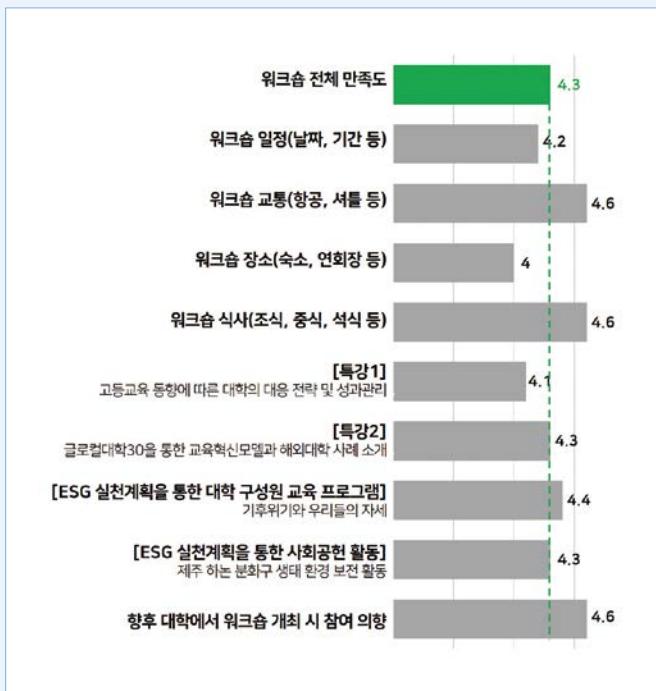


▲ 대학발전 성과관리위원회를 통한 성과공유



▲ ESG 실천계획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

■ 만족도조사 결과



- 대학발전 성과관리·ESG 워크숍에 참여한 29명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만족도는 4.3점(5점 척도)으로 높게 나타났다. 워크숍 프로그램 운영 관련하여 전체 만족도 대비 ESG 및 교육 관련 프로그램은 만족도가 높게, 성과관리 관련 프로그램은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 향후 대학에서 워크숍 개최시 참여 의향에 대해서 4.6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대학 구성원들이 워크숍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워크숍에 대한 개선점 및 발전방안으로 지속적인 개최, 다양한 주제의 특강 확대, 소위원회 회의 시간 확대 등의 의견이 나와 향후 대학발전 성과관리위원회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다.

■ 기대 효과

VISION Communitas 대학발전 성과관리·ESG 워크숍을 통해 대학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대학혁신 지원사업의 성과관리, 대학의 비전 및 중장기 발전계획, 자유전공 운영 및 교육혁신, ESG 실천계획 등 대학의 전체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인천가톨릭대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대학발전 성과관리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차별화된 전략으로 소규모 대학의 성장모델을 공유하고 확산시켜 대학 혁신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차의과학대학교, 미래형 교육정책 개편을 위한 미래교육기획단 운영



민재호

차의과학대학교
교육혁신센터
주임

추진배경

차의과학대학교는 2023학년도부터 신입생 선발 시 간호학, 약학을 제외한 전 계열에 전공자율선택제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의 3개 단과대학을 미래융합대학으로 통합하여, 인문/사회 계열과 자연 계열 모두 하나의 단과대학 내 9개 전공으로 융합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미래융합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은 1학년 기간동안 기초 소양 교육과 전공 탐색 교육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무작위로 편성된 10개의 반에서 다양한 흥미와 적성을 가진 동기들과 다양한 반별 활동 및 비교과를 경험한다. 그리고 2학년이 되면 2개의 전공을 필수적으로 선택하여 이수한다.

차의과학대학교 교육혁신원은 전공자율선택제를 골자로 하는 학사구조 개혁을 ‘미래형 교육정책’이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미래형 교육정책의 성공적인 시행과 모니터링을 위하여, 2020학년도부터 시행한 참교양기획단을 새로이 개편하여, 2022학년도부터는 학사제도 등 더 넓은 의미의 학생 의견수렴을 위해 미래교육기획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학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더 나아가 교육의 질 제고 및 환류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 구축에 활용하고 있다.

프로그램 개요

2024학년도 미래교육기획단의 경우, 단장(1), 부단장(1), 고문(2), 멘토(2), 멘티(10), 간사(6)로 구성되어 있다. 멘토 선발의 경우, 2~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최종 면접을 통해 2명을 선발하였다. 멘티 선발의 경우, 미래융합대학 1~10반의 지도교수에게 각 반별 1인의 학생을 추천받아 10명을 선발하였다.



전체 운영 기간은 1년이며,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운영한다. 그 운영 절차는 아래와 같다.

정기회의 안건은 학생들의 전공 선택을 돋기 위한 학사제도 구축이나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내용으로 월별로 선정하여 사전에 공지하고, 멘토와 멘티는 주제에 적합한 조사 방식을 선정하여 학생들의 의견수렴 및 요구조사를 진행한다.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중간 및 월간 보고서를 작성하고, 멘토는 전체 내용을 취합하여 정기회의 때 성과발표를 진행한다. 발표 후 성과에 대한 구성원별 피드백을 수용하고 정기 회의록에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월별 중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성과발표자료, 정기회의록은 2024학년도 미래교육기획단 활동보고서 편찬에 사용된다. 그리고 멘토와 멘티는 1년간의 활동 및 성과를 평가받아 장학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추진성과

2024학년도에는 미래교육기획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한 성과를 이루었다. 첫 번째로, 소양교양과 전공 선택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개선 활동을 진행하였다. 특히, 학생들이 학점 대비 강의 시간이 불만족스럽다고 평가하던 ‘미래설계’ 과목의 학점을 조정하고, 전공자를 선택제로 입학한 신입생들이 다양한 전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전공별 맛보기 강좌를 제작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자기주도적인 학습 방향 설정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두 번째로는, 학생들의 대학 생활 몰입도와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 타 대학의 우수 사례를 조사하고 본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 사항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2025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비교과 프로그램에 반영될 예정으로, 코로나19로 단절된 인적 교류를 회복하고 차병원 그룹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특화된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구체적인 예로는 미래융합대학 학생회장단과의 협업을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새 프로그램을 기획하였고, 10월 14일과 15일에는 미래융합대학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는 미래교육기획단과 학생회장단이 함께 학생들 간의 화합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세 번째로는, 학생들이 자율적이고 활발한 동아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중앙동아리 개설 기준을 완화하고 동아리실 시설 개선을 하게 방학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증진시키고 교내 문화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기존 H-CUBE(비교과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들이 비교과 프로그램을 보다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성공 Plug-In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교과와 비교과 활동을 연계하여 진단, 관리, 평가, 환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이 교과 및 비교과 관리와 진로 설계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되어, 학생 개개인의 성공적인 미래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차 정기 회의(4월 11일)



▲ 2차 정기 회의(5월 8일)



▲ 3차 정기 회의(5월 22일)



▲ 4차 정기 회의(6월 5일)



▲ 5차 정기 회의(9월 30일)



▲ 6차 정기 회의(11월 5일)

2024 제1회 미래융합대학 체육대회 사진



■ 향후 계획

앞으로도 미래교육기획단은 무전공으로 입학한 신입생들의 눈과 귀가 되어 완성도 높은 미래형 교육정책 고도화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2023학년도에 미래융합대학 신입생이 처음 들어왔고 현재 2024학년도에 무전공 1학년과 복수 전공을 진행하고 있는 2학년이 새로운 체제에 맞추어 성장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미래교육기획단은 신입생들의 원활한 학교생활 소화를 위한 소화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추후 전공자율선택제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각 학년별로 겪게 되는 수많은 고민과 어려움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매개체가 되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매년 새롭게 발생하는 이슈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새로운 개선 과제를 발굴 및 환류하며 오늘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차의과학대학교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차세대 디지털 환경 (Next-Generation Digital Learning Environment: NGDLE) 기반의 교수-학습 생태계 구축을 위한 미래형 교수-학습 모델 개발



이동희

포항공과대학교
교육혁신센터
선임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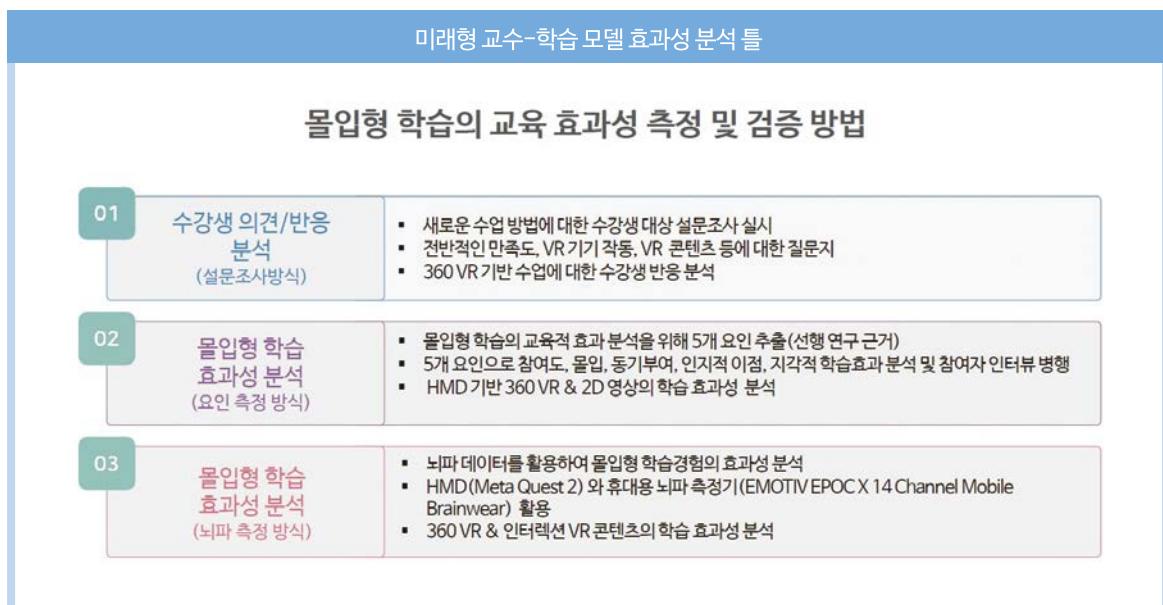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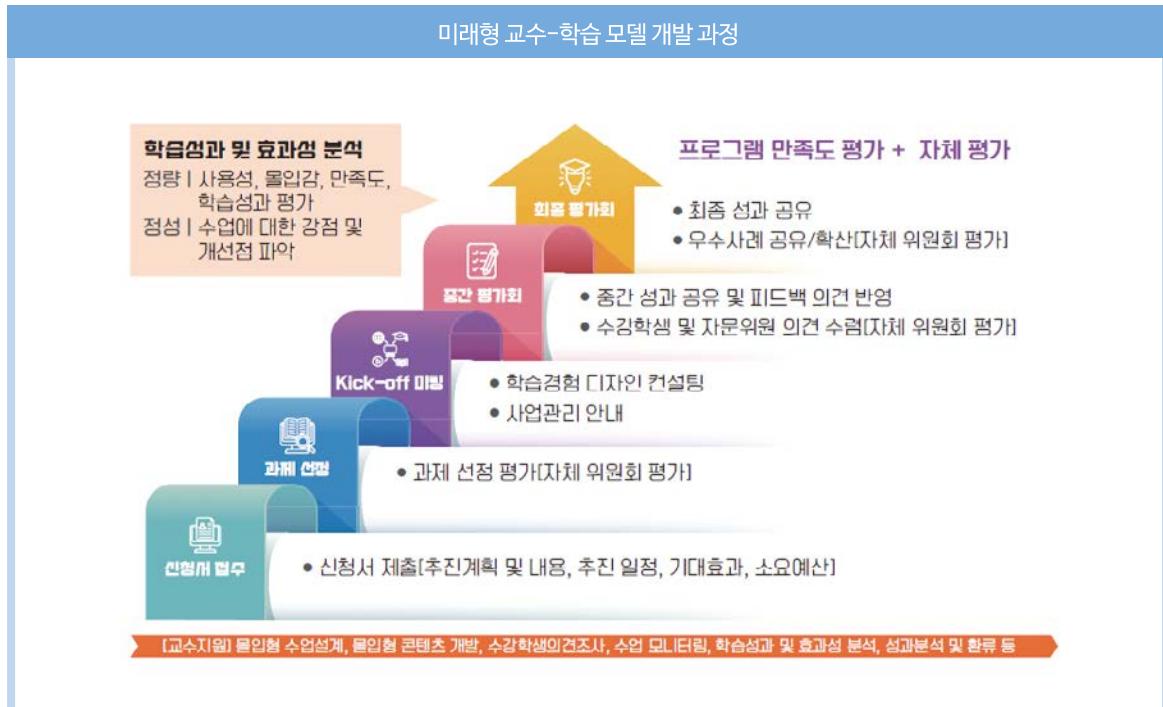
추진 배경 및 목적

포스텍은 가속화되는 기술혁신과 디지털 기술 발전에 신속히 대응하고,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에듀테크 기반의 교수-학습 모델 개발 및 발굴을 지원하는 ‘미래형 교수-학습 모델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4차 산업기술 발전으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교육 혁신을 위한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하여 이를 확산하기 위함이다. 학습경험 공간 확장 및 디지털 기반 학습환경에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수업을 계획, 실행, 평가를 지원하는 교육-학습 전략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운영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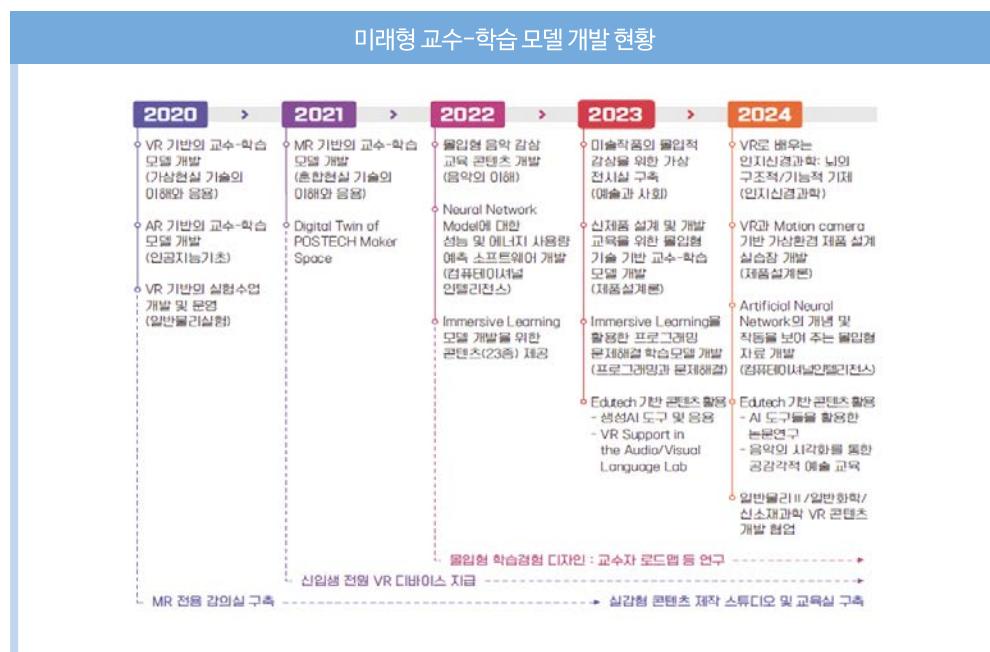
‘미래형 교수-학습 모델 개발 사업’은 두 유형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첫째로 ‘에듀테크 기반 교수-학습 모델 개발’은 실제 수업에 최적화된 모델을 개발하는 것으로, 몰입형 학습에 관련된 AR, VR 콘텐츠들을 수업에 최적화된 학습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직접 개발하는 형태이다. 둘째 ‘에듀테크 기반 교수-학습 모델링’은 기존에 개발하였거나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콘텐츠나 학습 도구들을 수업에 접목하는 형태이다.

사업은 신청에서부터 과제 선정 평가, 콘텐츠 개발, 피드백 의견 모니터링, 효과성 분석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학습성과 및 효과성 분석은 사용성이나 몰입감 그리고 만족도, 학습성과 평가 같은 정량 평가와 더불어서 수업에 대한 강점 및 개선점을 파악할 수 있는 정성 평가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몰입형 학습의 효과성 검증은 단계별로 진행한다. 1단계에서는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수강 학생이 수업에 몰입감이 있었는지, 이러한 콘텐츠를 활용했을 때 본인의 학습에 도움이 되었는지와 같은 학습자의 피드백을 분석한다. 2단계에서는 몰입형 학습의 효과성 분석을 위해 분석 요인들을 추출하고 그 요인들이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효과를 가졌는지 요인 측정 방식으로 분석한다. 3단계에서는 몰입형 경험에 대한 간접적인 평가와 함께 직접적인 효과성 검증을 위해 뇌파 측정 데이터를 활용해서 몰입형 학습경험을 분석하고 있다.



■ 미래형 교수-학습 모델 개발 사업 성과

본 사업은 가상현실(VR), 혼합현실(MR),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교육혁신 모델을 개발해 왔다. 2020년 VR/AR 기반의 교수-학습 모델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2021년에는 디지털 트윈과 MR 기반 모델을 구축했다. 2022년부터는 실감형 학습 콘텐츠를 활용한 몰입형 학습경험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2024년에는 메타버시티 교육 추진단과 협력하여 교과목의 교육목표와 학습자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교과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VR 콘텐츠를 수업 설계 단계부터 개발, 지원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VR 기술을 활용한 최적화된 학습환경을 구현하고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적 학습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성과는 한국공학교육학회에서 주관한 2024년 공학교육학술대회에서 우수 사례로 발표되어 16개 국내 대학 및 기관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었으며, 몰입형 학습환경 구축과 AI 기반 맞춤형 교육 시스템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본 사업은 미래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첨단 기술 융합 교육의 선도적 모델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모델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다양한 교육현장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고자 한다.



2024년 공학교육학술대회 포스텍 연구성과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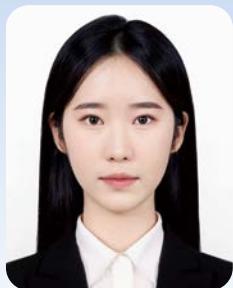
■ 향후 계획

본 사업은 VR/MR,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교육혁신 모델 개발과 교육 효과성 분석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특히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축적된 교육혁신 성과와 노하우를 확산하고자 'POSTECH Educational Innovation Network'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VR/MR 교육 콘텐츠와 몰입형 학습경험 디자인(Immersive Learning Experience Design) 모델 개발 및 운영 노하우를 국내외 대학들과 공유하고, 네트워크 참여 대학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협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Quiz Wars를 통해 재미도 잡고! 학생 참여도 높이고!



김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지원팀
담당

■ 추진 배경 및 목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혁신원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환경 제공과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해 학내 주요 행사에서 학생 참여 중심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핵심역량통합관리시스템(이하 HUFSAbility) 활용법을 소개하고 이용을 장려하여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개인 역량을 관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4학년도 하반기에는 Quiz Wars를 기획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였다.

■ 운영 내용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게임미피케이션 요소를 활용한 온라인 퀴즈 대회 Quiz Wars를 기획하였다. 퀴즈 문제는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교육혁신원에 관련된 내용으로 출제하였으며, 학생들이 게임 형식으로 구성된 온라인 퀴즈 플랫폼을 통해 문제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유익한 정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Quiz Wars는 대동제(QUINQUATRIA)와 ‘제3회 외전: 비교과 프로그램 우수사례 발표회(이하 외전)’에서 2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대동제 Quiz Wars 사전 홍보

2024.09.23.
~2024.09.30

Quiz Wars: 우주전쟁의 서막(대동제)

1일 차(10.07)	2일 차(10.08)
13:00~17:00	

Quiz Wars: 깨어난 역량(제3회 외전)

2024.11.01.
14:00~16:00



▲ Quiz Wars: 우주전쟁의 서막 포스터



▲ Quiz Wars: 깨어난 역량 포스터

Quiz Wars: 우주전쟁의 서막

행사 대동제(QUINQUATRIA)

일시 2024.10.07.(월)~2024.10.08.(화) 13:00-17:00

참여방식 비실시간 참여

Quiz Wars: 깨어난 역량

행사 제3회 외전: 비교과 프로그램 우수사례 발표회

일시 2024.11.01.(금) 15:40

참여방식 실시간 협장 참여

Quiz Wars: 우주전쟁의 서막

대동제
(QUINQUATRIA)

9월 23일부터 30일까지 Quiz Wars 사전 홍보 이벤트를 개최하였다.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교육혁신원이 제작한 홍보 게시물을 피드로 올린 학생 중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6명을 선발하여 경품을 증정했다. 1,399개의 좋아요를 받은 학생이 1등을 쟁취하였다.

Quiz Wars 참여 자격을 얻기 위해 학생들은 교육혁신원 부스에서 주어진 미션을 완료해야 했다. 총 세 개의 미션은 교육혁신원 공식 홍보채널, HUFSAbility 등 다양한 매체를 탐색하는 과정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이 퀴즈에 대한 힌트를 얻어갈 수 있도록 했다.



◀ 인스타그램에서
미션 확인하기

대동제 Quiz Wars에는 1일 차에 188명, 2일 차에 194명이 참여하여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평균 정답률은 49.5%였으며, 수상자 18명의 평균 정답률은 95.8%로 상위권 싸움이 치열했다.



문제 내용	문항 수 (양일 합산)	평균 정답률
교내 학사 제도	8	52.5%
HUFSAbility 기능	5	52.1%
비교과 프로그램 안내	7	51.4%
대학혁신지원사업 안내	7	49.8%
교육혁신원 안내	5	39.2%

#外戰: 경합

Quiz Wars:
깨어난 역량제3회 외전:
비교과 프로그램
우수사례 발표회

Quiz Wars: 깨어난 역량이 외전에서 이어졌다. 외전은 우수사례 발표로 구성된 1부와 특별 강연, Quiz Wars, 시상식으로 구성된 2부로 전개되었다. 1부에서 발표자 학생들은 6개의 비교과 프로그램과 그 활동 내용을 소개하였다. 우수사례 발표는 심사위원 점수 90%와 방청객(학생, 직원) 심사점수 10%를 합산하여 수상자를 선정했다.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연계 핵심 역량	발표 주제 및 발표자
학생교육혁신단 BOO스터 교육혁신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홍보 및 개선 모니터링 활동을 하는 학생교육혁신단	- 대인관계 - 의사소통 - 지식·정보·기술활용 - 창의·혁신	학생교육혁신단 BOO스터 8기 활동 : 창의적 활동을 통한 리더십과 주도적 학습 역량 증진 (발표자: BOO스터 8기)
동대문구 키다리 서포터즈 동대문구청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취약 계층 아동 대상 외국어능력 교육을 지원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 자기주도적학습 - 대인관계 - 의사소통 - 세계시민	동대문구 키다리 서포터즈를 통해 개발된 역량 (발표자: 이정현)
기숙사 멘토링 '봄이음' 기숙사에 입사하는 새내기 신입생들의 학교 적응 및 관계 형성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 대인관계 - 의사소통 - 지식·정보·기술활용 - 세계시민	대학교 생활이 처음인 신입생 멘티를 위한 등불 되어주기 (발표자: 이은서)
H-UP 진로탐색학점제 학생이 스스로 계획을 세워 자기주도적으로 진로활동을 설계, 수행하고, 이를 평가하여 학점으로 인정하는 활동	- 자기주도적학습	학생이 만들어 가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진로 탐색 (발표자: 안소현)
비교과 프로그램 우수후기 공모전 HUFSAbility를 통해 참여한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을 영상이나 수기로 후기를 제출하는 공모전	- 의사소통 - 창의·혁신 - 세계시민	Better World 아이디어 공작소 대상 수상과 연계하여 제작한 공모전 영상 (발표자: 백선영)
대학-지역사회 연계 K-HTML 해커톤 지역사회와 대학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생성형 AI기반 웹/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해커톤 대회	- 의사소통 - 지식·정보·기술활용 - 창의·혁신 - 세계시민	생성형 AI기반 실버 케어 서비스 'BIMO' 앱 개발 : 해커톤 대회 대상 수상 (발표자: 박채현)

2부에서는 고등교육의 거버넌스 변화를 주제로 충북대학교 이길재 교수의 특별강연 세션이 진행되었다. 이길재 교수는 대학이 지역 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and Education) 정책을 소개하였다.

#外殿: 명예의 전당



발표자	
대상 (상금: 40만원)	박채현 (국제 21)
최우수상 (상금: 30만원)	안소현 (융합일본 20)
우수상 (상금: 20만원)	백선영 (융합인재 21)

#外傳: 전설이 될 이야기

〈Quiz Wars: 깨어난 역량〉의 퀴즈 문제는 우수사례 발표와 특별강연 내용에서 출제하였다. 학생들은 발표와 강연에 귀를 기울이며 세부적인 내용도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실시간 퀴즈로 탄생한 외전의 긴장감 넘치는 순간은 교육혁신원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상	썸네일	QR코드
Quiz Wars 티저		
외전 현장 스케치		
외전 녹화본		

운영 성과

교육혁신원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홍보 채널을 활성화하여 소통을 강화하였다. 부스에서 진행된 마이크로전공 설문 응답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글로벌캠퍼스에서만 운영 중인 영어 모듈 교과목 ‘비즈니스영어’와 ‘사회과학영어’를 서울캠퍼스에도 개설하기로 결정하였다.

만족도조사 결과 모든 설문 항목에서 4.5 이상의 응답을 기록했으며, 평균 평점은 4.8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학생들은 서술형 응답에서 “퀴즈를 통해 교육혁신원과 그 사업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유익한 기회였다”고 평가하며,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문화콘텐츠 메이커스' 프로그램 운영



송재희

한림대학교
박물관
직원

추진배경

한림대학교 박물관은 1988년 개관하여 강원 지역 및 주변 지역의 발굴 유물과 선사·역사·민속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2014년부터 대학과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22년부터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지역의 공방 및 예술가와 함께 지역사회 상생 프로그램인 '문화콘텐츠 메이커스', '지역문화콘텐츠 메이커스'를 기획하였다.

추진내용

- '문화콘텐츠 메이커스', '지역문화콘텐츠 메이커스' 프로그램은 박물관 소장품과 지역 문화자원을 모티브로 한 문화상품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칠보공예, 자개공예 등 전통공예부터 3D펜 공예, 일러스트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재학생의 창의 도전역량, 취·창업역량 향상을 위해 예술가와 공방의 창업, 문화상품 개발 사례를 공유하였다.
- 프로그램은 재학생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 교과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으며, 일부 프로그램은 지역 청소년 대상으로도 운영하였다.
- 재학생이 프로그램의 보조강사와 성과전시회 포스터, 패널 디자인, 문화상품 개발에 참여하여 실무역량을 함양할 수 있었다.
- 프로그램 사례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해 프로그램의 결과물을 달력, 티코스터, 볼펜, 파우치, 마그넷 등의 문화상품으로도 제작하였으며, 프로그램 사례와 함께 참여자의 작품, 개발한 문화상품을 모아 프로그램 성과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세부프로그램명	대상	내용
문화콘텐츠 메이커스	한림대 재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칠보공예, 유리공예 소품 만들기 -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운영 - 칠보공방 지니의 예술가와 재학생이 강사로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캘리그라피 소품 만들기(기초, 심화) -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운영 - 캘리그라퍼 솔우, 봄내캘리그라피 공방의 캘리그라퍼와 재학생이 강사로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문화콘텐츠를 활용한 3D펜 소품 만들기 - 푸르다공방의 예술가와 재학생이 강사로 참여 -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자개공예 손거울 만들기 - 유학생 대상 <한국지역학입문>, <한국의 문화유산> 교과목 지원
	지역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문화콘텐츠를 활용한 3D펜 소품, 레진공예 소품 만들기 - 유봉여자중학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으로 운영, 재학생이 보조강사로 참여
지역문화콘텐츠 메이커스	한림대 재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춘천 일러스트 달력과 엽서 만들기 - 디지털인문예술 전공 <지역사회와 역사문화콘텐츠> 교과목 지원,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운영 - 해피투미 공방의 일러스트레이터와 재학생이 강사로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수제비누, 샴푸바 만들기 -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운영 - 르사봉 공방, 봄내향기 공방의 예술가, 재학생이 보조강사로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매듭공예 키링 만들기 -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운영 - 요그레이드(베르디스) 공방의 예술가, 재학생이 강사로 참여
	지역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아크릴 무드등 만들기 - 유학생 대상 <한국지역학입문> 교과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아크릴 무드등, 보드게임, 스트링아트 무드등 만들기 - 유봉여자중학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춘천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소속 학교밖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운영, 재학생이 보조강사로 참여

‘문화콘텐츠 메이커스’
프로그램 단체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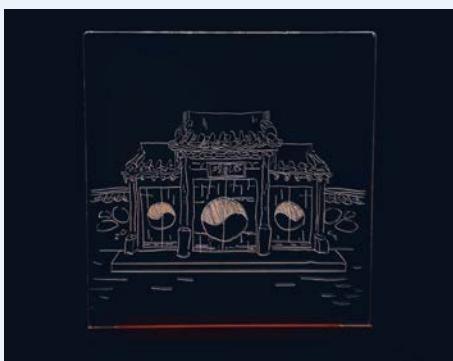


‘지역문화콘텐츠 메이커스’
프로그램 활동





▲ ‘문화콘텐츠 메이커스’ 작품



▲ ‘지역문화콘텐츠 메이커스’ 작품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문화콘텐츠 메이커스’ 프로그램 운영



▲ (상) 성과전시회 / (하) 개발한 문화상품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대학의 사회·경제적 영향력 측정 및 Hansung Impact Report 발간



황영아

한성대학교
한성미래연구센터
센터장

■ Hansung Impact Report 발간 배경

한성대학교는 진리(眞理)·자선(至善)이라는 교육이념을 실현하고, '창의융합인재양성', '학생성공지원교육', '미래지향교육환경'이라는 대학발전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및 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우리 대학의 활동은 우수 인력을 배출하고 연구개발과 지식 창출 등 다양한 형태의 가치를 창출하며,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 대학이 창출하는 가치나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관해 객관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이에 2023년 처음으로 우리 대학이 창출한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2024년에는 측정절차 및 항목을 보다 정교화하여 두 번째 Impact Report를 발간하였다.

■ 대학의 사회·경제적 영향력 측정 절차 및 방법

대학의 사회·경제적 영향력 측정을 위해서는 국내외 문헌 및 사례와 우리 대학 주요 활동을 분석하여 사회·경제적 영향력 측정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사회학·경제학 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2023학년도 우리 대학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력을 산출하였다.

절차	내용
문헌 및 사례 분석	<p>국내외 대학의 사회·경제적 영향력 측정 관련 문헌 및 사례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미국대학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Universities) 'About AAU'The Economic Impact of The Ohio State University글로컬대학 지역영향력 지표Economic Impact of UNIST(2022), HYU 지속가능경영보고서(한양대)전남대학교 LINC 사업단 사회경제적 가치 계량화 모형 및 사례(연구물) 등

절차	내용
우리 대학 2023학년도 주요 활동 분석	사회·경제적 영향력측정을 위한 기초자료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학년도 학교 현황 자료 분석 2023학년도 주요 활동 자료 수집 및 성과 분석
사회·경제적 영향력 측정 방안(안) 마련	사회·경제적 영향력 측정 기준 및 항목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경제적 영향력 측정 범주 도출 : 경제적 기여, 인적자본 기여, 지식사회 기여, 지역공동체 기여 범주별 측정 항목 및 기준 도출 화폐가치화를 위한 사회·경제적 영향력 측정 산식 개발(정성지표는 별도 기준 마련) 전문가 검토
사회·경제적 영향력 측정	2023 사회·경제적 영향력 측정 및 Hansung Impact Report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경제적 영향력 측정을 위한 자료 수집 및 계량화 사회·경제적 영향력 측정 및 Hansung Impact Report 발간

사회영향력측정범주는대학의교육과, 연구, 그리고봉사라는기능과역할을중심으로경제적기여,인적자본기여,지식사회기여,지역공동체기여등으로구분하였다.

범주	개념 및 항목 구분	
경제적 기여 Economic contribution	대학 재원이 직·간접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구성원의 지출을 늘려 소비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지출 : 연구 및 학생 지원, 대학운영을 위한 경비 지출 고용창출 : 교직원 및 학내 입주기업·학교기업·창업기업을 통한 고용창출 간접적 효과 : 산업연관분석-생산파급효과 산출
인적자본 기여 Human capital contribution	대학이 배출한 인력이 사회의 생산성 향상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적자본공급 : 학부 졸업생 취업 및 대학원 진학, 대학원 졸업자 및 유학생 취업 간접적 효과 : 대학졸업자 배출이 주변의 임금상승을 유발하여 상승한 임금소득 <p>* 내생성장이론에 근거</p>

범주	개념 및 항목 구분	
지식사회 기여 Knowledge Society contribution	대학이 직접 사업수행을 하면서 창출한 지식과 지역사회에 이전된 지식이 창출하는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연구개발: 공공 및 민간 연구 수행 지역기술혁신: 기술이전, 공동 장비 운영, 학생 및 교원 창업을 통한 혁신 창출 간접적 효과: 산업연관분석-생산파급효과 산출
지역공동체 기여 Community contribution	대학의 활동이 지역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가치 형성(고등교육기회제공) : 지역주민 교육 프로그램, 강좌 공개·공유 학교 인프라 개방·공유 : 교내 부지 등 학교 공간 개방 지역사회 자문·봉사활동 : 지역협력 및 사회봉사 프로그램

한성대학교는 2023학년도 투입예산 대비 2.62배의 영향력을 창출하였으며, 이는 우리 대학이 투입한 예산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회에 환원되었음을 의미한다.

▶ 경제적 기여

경제적 주체로서 직접적 일자리는 물론 학내 입주기업, 학교기업, 학생·교원 창업기업을 통해 총 1,02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대학교육 및 경영을 위한 소비창출 활동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1,397억 342만여원의 화폐 가치를 창출

▶ 인적자본 기여

트랙제 기반 전공교육과정 및 맞춤형 학생성공지원을 통해 971명의 대졸 취업인력을 배출하는 등 지역사회 인적자본 강화에 기여

▶ 지식사회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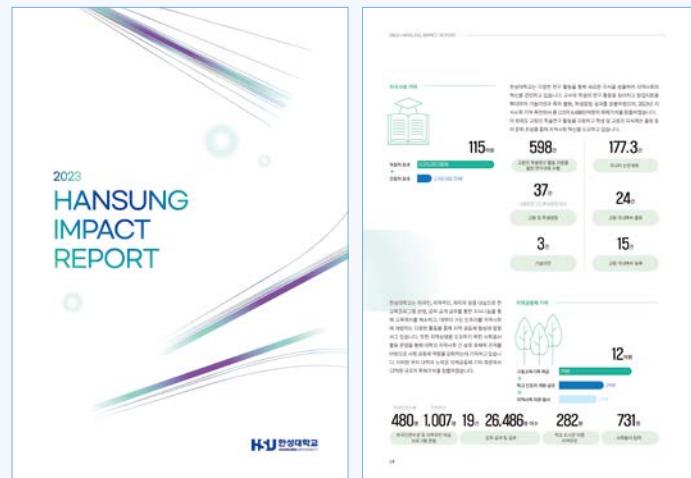
교수와 학생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창업지원을 확대하여 기술이전과 특허 출원, 학생창업 성과를 창출하는 등 지역사회 혁신을 도모

▶ 지역공동체 기여

외국인, 지역주민,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강좌 공개·공유를 통한 지식나눔(19건 강좌 26,486명 이수)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대학이 가진 인프라를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

 2023 Hansung Impact Report 발간

2023학년도 Hansung Impact Report는 이상의 절차에 따라 산출된 우리 대학이 지역사회에 기여한 영향력을 비롯하여 우리 대학의 연간 주요 활동을 담고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영향력 측정은 대내외에 미치는 대학의 가치를 확인하고 대내외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며 대학의 주요 성과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학생사례

Student case

중국에서 던진 ‘왜(Why)’라는 질문, 그 답을 함께 나눈 사람들



유지연

계명대학교
광고홍보학과
학생

광고홍보학과 학생으로서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광고 시장과 글로벌 시대의 흐름 속에서 더 넓은 시각과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이해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늘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글로벌 전공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되어 세계 주요 시장 중 하나인 중국에서 현지 소비자들의 문화와 광고 트렌드를 직접 경험해 보고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약 2주간 중국의 주하이와 광저우를 방문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주하이에서는 한중 미래 디자인 워크숍에 참여하고, 광동폴리텍대학교에서 시스템을 견학했습니다. 또, 광저우에서는 기남대학교 광고홍보학과와 교과과정에 대해 논의하고, 제일기획 광저우 지사를 탐방하였습니다. 여러 활동을 통해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지녀야 할 감각과 광고 및 마케팅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번 전공 글로벌 체험학습의 주요 프로그램이자 가장 뜻깊었던 활동은 북경사범대학에서 5일 동안 진행되었던 한중 미래 디자인 워크숍이었습니다. 약 3회의 아이디어 도출법에 대한 특강을 듣고, 산업디자인 전공의 중국인 학생들과 팀을 이루어 ‘지속가능한 그린 패키징’을 주제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장난감을 정리 정돈 할 수 있는 농구 골대를 패키지로 제안하였습니다. 범낮없이 회의를 거듭하면서 문화적인 차이를 벗어나 공감과 협업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로 인해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특히 초반 아이디어가 농구 골대 모양을 형상화한 분리수거였는데, 분리수거에 대한 개념이 달라 이해시키기 위해 한참 동안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서로의 관점과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며, 여러 의견을 하나의 아이디어로 합칠 수 있었습니다. 중국 학생들과 다양한 얘기를 하며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과정은 색다른 경험이었으며, 그 속에서 잠시나마 가졌던 우리만의 문화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이 융합된 아이디어가 더욱 창의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글로벌 환경에서 성공적인 협업의 출발점은 진정성 있는 소통과 공감을 통한 이해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았던 또 다른 프로그램 중 하나는 광고대행사인 제일기획 광저우 지사 탐방이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광고 스타일과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에 대해 깊이 있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일기획 관계자분께서 강조하신 내용이 인상 깊었습니다. 중국의 각 지역이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 팀별 회의 및 패키지 시안

한중 미래 디자인 워크숍



중국에서 던진 '왜(Why)'라는 질문, 그 답을 함께 나눈 사람들



마케팅 전략을 세울 때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해외 기업이 중국에서 마케팅할 때는 현지의 문화적, 사회적 특성을 반영하여 소비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모바일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었으며, 팝업스토어에서 QR코드를 많이 활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지역적 특징에 따라 소비자들이 광고를 보는 방식이 다르고, 광고가 소비자에게 공감과 가치를 제공하는 매개체로 작용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학습 프로그램 외에도 현지 문화를 체험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관광지나 도심을 돌아다니며 중국의 화려한 디지털 옥외 광고 현황을 살펴보고, 여러 매장을 이용하며 모바일 광고에 특화된 중국 시장의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한국과 달리 QR코드 기반의 서비스가 이미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었으며, 중국 소비자들이 모바일 중심의 경험을 중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화된 서비스를 직접 사용하면서 편리함을 느꼈고, 중국 소비자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모바일 중심의 중국 시장을 경험하면서 모바일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이 글로벌 시장에서 필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주라는 기간동안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왜 중국에서는 모바일 광고가 활발할까?', '왜 거리에 배너 광고가 없을까?', '왜 한국과 달리 백화점에는 휴식 공간이 없을까?', '왜 이 제품을 현지인들이 선호할까?' 등과 같은 질문을 던지며 현지 시장과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노력하였고, 현지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궁금증을 풀어나갔습니다. 중국인 팀원들과의 대화나 기업 탐방을 통해 해당 문화나 현상이 형성된 배경과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현지를 둘러보며 중국 시장과 소비자들에 대해 탐구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광동폴리텍 대학_ 시스템 견학



▲ 한중 미래 디자인 워크숍_수료 단체사진

이번 전공 글로벌 체험학습은 단순히 강연을 통해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기반을 통해 직접 현지인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글로벌 마인드와 공감, 네트워크의 가치를 마음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이지만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세로 주어진 과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 지식뿐만 아니라 글로벌 관점에서 소비자 인사이트를 얻고, 문화적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융합의 중요성을 체감하였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잠들어 있던 호기심을 깨우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며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얻은 공감과 소통의 경험은 좋은 거름이 되어줄 것입니다. 추후 제 목표인 유통 산업에 진출하여 소비자와 진정성 있게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글로벌 환경에서의 감각을 지닌 예비 기획자로 한층 더 성장한 기분이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넓디 넓은 땅 중국에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프로그램 기간 동안 함께한 중국 학생들, 학습에도움을 주었던 프로그램 관계자들과의 만남은 어쩌면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붉은 실의 인연이 다시 닿길 바라며, 이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신 교수님과 교육혁신팀 담당자님, 그리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학교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학생사례

Student case

하브루타 공부법: 대화 속에서 발견하는 학문과 성장



이민주

서원대학교
영어교육과
재학생

“하브루타 공부법: 대화 속에서 발견하는 학문과 성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청중과의 rapport(라포) 형성이었습니다. 하브루타는 상대적으로 낯선 개념일 수 있기에, 처음부터 너무 이론적이거나 어려운 설명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청중이 쉽게 공감하고 몰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발표 초반, “혼자 공부하면서 지루하고, 막막한 경험을 한 적 있지 않나요?”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많은 학우가 공감할 수 있는 경험을 언급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대화식 공부법인 하브루타를 소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발표의 핵심은 비교과 프로그램인 하브루타러닝의 활동방식과 그로 인해 얻은 긍정적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어떻게 진행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시각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사진 속에서는 저희가 시를 낭독하는 모습, 서로가 만든 문제를 함께 논의하며 풀어가는 장면이 담겨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브루타의 핵심인 ‘대화’를 통해 학문적인 성장을 이루는 과정을 보여주고, 협력적 학습임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하브루타를 실천한 결과로 얻은 전공 성적 향상과 교수님과의 친목도 소개했습니다. 저희가 하브루타를 통해 학업 성취도를 올린 일과 지도교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진 일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이는 하브루타가 단순히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을 넘어서, 학문적 관계의 형성과 사회적 네트워크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발표의 최종목적은 이 공부법을 더 많은 후배에게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발표의 마지막 부분은 졸업을 앞둔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하는 조언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저희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하브루타의 가치를 직접 전달하며, 이 공부법이 자기 주도적 학습뿐만 아니라,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원동력이 되어주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후배들에게 “여러분도 하브루타를 통해 잠재력을 꽂피우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마무리했습니다.

발표 당일, 많은 청중 앞에서 하브루타라는 낯선 공부법을 소개하는 자리에 대한 긴장과 떨림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를 통해 후배들에게 이 학습법을 전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더 커기에 용기를 내었습니다.



최나래

서원대학교
영어교육과
재학생



초반에 서원인 6대 역량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청중과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청중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도 있었지만, 우려와 달리 일부의 청중들이 손을 들고 대답해주었고, 그 모습을 보면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 반응 덕분에 긴장이 풀리며 발표는 자연스럽게 흐름을 타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응할수록 발표에 더욱 몰입할 수 있었고, ‘하브루타 학습법’이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학습하게 만드는 힘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주입식 학습에 익숙한 학우들에게 하브루타라는 낯선 공부법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걱정이 있었지만, 그들의 반응을 보면 이 공부법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발표 후에는 최우수 발표로 선정되어 정말 기뻤습니다. 이상을 받게 된 것은 단순히 발표의 형식적인 성공이 아니라, 저희가 전달하려 했던 하브루타 학습법이 많은 사람에게 의미 있게 받아들여졌다는 뜻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발표는 저희에게 졸업 전 최고의 경험이었습니다. 2년 동안 꾸준히 참여해온 학습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릴 기회를 얻었고 유종의 미를 거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발표를 통해, 저희가 그동안 했던 공부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의미를 느꼈습니다. 발표회를 준비하고, 해내는 그 모든 순간이 저희에게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 최고의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최나래

: 이번 발표회를 준비하며, 지난 4년간 참여했던 비교과 프로그램 중 가장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학우분들께 소개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제게 단순한 경험을 넘어 값진 배움과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발표 준비 과정에서도 각 프로그램에서 얻은 배움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주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앞으로도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민주

: 이번 발표회에 참여하게 된 것은 이러한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달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브루타가 얼마나 유익한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저에게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간의 경험을 정리하고 하브루타의 매력을 직접 전달할 수 있다는 생각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후배들이 이 공부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잠재력을 꽂피우고 새로운 가능성으로 나아가기를 응원합니다. 졸업을 앞둔 지금, 저 또한 하브루타 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사회에서 창의적이고 열린 인재로서 활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브루타 공부법:

대화 속에서 발견하는

학문과 성장



CUKI 비교과 수기 발표회는 그 자체로 저희의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며 하브루타 학습법을 학우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 학습법을 깊이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목표는 하브루타 학습법의 진정한 가치가 청중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관객의 시선을 고려하여 발표 순서와 내용을 재구성하며, 설명이 일방적이지 않고 질문과 답변을 통한 상호작용이 중심이 되는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수기 발표회에서 얻은 자신감도 저희의 성과 중 하나일 것입니다. 발표를 위해 이론을 정리하고 사례를 제시하는 과정은 저희가 교사가 지녀야 할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브루타 학습법의 깊은 가능성과 그 의미를 스스로 재발견하며,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더 큰 기대와 목표를 품게 되었습니다.

학생사례

Student case

함께하는 배움, 함께 자라는 꿈 : 교육기부단 이야기



홍리아

성결대학교
유아교육과
학생

■ 추진 배경 및 목적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비전을 갖고,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며 남을 돋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1학년 1학기以來 선배의 추천으로 지역사회 교육기부단을 알게 되었고, 교육기부단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여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기부단은 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소득 및 취약계층(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에 어울리는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지 고민도 있었지만, 지역사회의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이 활동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프로그램 소개

교육기부단 활동은 전공별 학부(과) 진로체험, 학교 문화·예술, 방과 후 학습지원영역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저는 방과후 학습지원으로 지역사회 협력기관을 통해 지역 내 저소득층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요과목(국어, 영어, 수학 등)의 학습지원을 진행하였습니다. 매 학기 10시간(주 1회, 1시간씩) 동안 진행되며, 각 기관에서 매칭해 준 학습 지원이 필요한 지역 내 초등학생을 1:1 또는 1:2로 지도하여 학생 대상 맞춤형 학습을 제공합니다. 학생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 다양한 과목 중에서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학습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 3년간 이 활동에 참여하며 영어와 사회를 중심으로 학습을 지도해왔습니다.

이러한 교육기부단 활동은 활동 장비와 강사료 및 활동지원비를 지급하고, 교육기부단 인증서와 자원봉사 시간을 지원해줍니다. 본 활동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습지원을 받기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참여 학생들의 자존감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지역사회 학습공동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교육 발전과 인재 육성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에 어울리는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지 고민도 있었지만, 지역사회의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이 활동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프로그램 진행 사진

■ 프로그램 성과

현재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중이고 프로그램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초 영어 실력 향상과 태도의 긍정적 변화입니다. 아이의 영어 실력 향상은 눈에 띠는 성과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아이의 영어 기초 수준과 필요한 점을 파악한 결과 알파벳 소리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매주 학습 전에 알파벳 소리를 따라 읽는 시간을 가졌고, 약 5회차 수업 후에는 아이가 스스로 알파벳 소리를 외우고 단어를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영어에 흥미가 없던 아이였지만, 이제는 제가 알려주는 내용을 응용하여 스스로 영어 단어를 읽어보려는 자세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2학기 이후 만나본 아이는 자신감이 높아져, 읽을 수 있는 단어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아이의 영어 실력뿐 아니라 영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도 큰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둘째, 든든한 관계 형성입니다. 저와 아이 사이에 형성된 신뢰와 관계는 이번 프로그램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입니다. 저를 만난 아이는 한부모 가정으로 특별히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학습을 시작하기 전, 10~20분 정도 일주일 동안의 일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는 저에게 힘들었던 일이나 즐거운 일, 속상했던 일 등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편안함을 느꼈고, 저도 아이의 상황에 공감하며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점차 쌓이면서 아이는 저와의 시간을 기다리며 다음 학기에도 함께하기를 희망한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이에게 저는 의지할 수 있는 선생님이자 든든한 존재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 교육기부단 활동 우수사례 공모전 장려상 수상

함께하는 배움, 함께 자라는 꿈

: 교육기부단 이야기



마지막으로, 교사로서의 성장과 보람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예비교사로서 큰 의미와 보람을 안겨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영어라는 과목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활동을 구성할지 고민하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교사로서의 경험을 쌓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 아이의 성장을 돋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앞으로도 교사로서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에게 예비교사로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험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될 수 있다는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교육기부단 활동으로 예비교사로서 가르치는 학생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교사라는 꿈을 위한 좋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학생사례

Student case

INNO 모니터링단을 통한 사업기획 및 운영 경험



최재혁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대학혁신사업단 INNO모니터링단
(사업기획팀)
재학생

저는 2022년부터 다양한 축제에서 운영팀장과 스태프로 일하며 축제 기획자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여러 활동을 통해 경험을 쌓던 중, 작은 프로그램이라도 직접 기획해 보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광대학교 대학혁신사업단에서 INNO 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해 사업기획팀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획팀으로서 한 활동 중 하나는 2025년 대학혁신사업단 개별 프로그램 기획이었습니다. 사업기획팀 학생들에게 내년도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에 앞서 학생들의 요구와 필요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학생들의 참여가 필수적이었고, 저희 팀은 대상자 300명이라는 목표를 설정해 교내 행사 일정과 설문 위치, 참여 경품을 계획해 설문조사가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원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에 기업 또는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실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이 기획은 그저 제출에서 끝나지 않고, 원광대학교 대학혁신사업단 성과포럼 일정 중 학생과 사업단 관계자 분들에게 직접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더욱 뜻깊은 도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기획서를 완성하기까지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고민을 거듭했으며, 특히 프로그램 기획의 목적이 명확해야만 기획서를 구체화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며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관 기관과의 협조, 예산 편성 등 현실적인 문제들 역시 기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깨닫게 되었고,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검토하고 고려하는 것이 기획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모니터링단원으로서 진행했던 두 번째 활동은 바로 2024 대학혁신지원사업 참여학생 대학혁신 사례영상 경진대회 공모전이었습니다. INNO 모니터링단을 통해 대학혁신사업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교에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프로그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INNO 모니터링단 활동을 더욱 의미 있게 마무리하기 위해 공모전에 참여하자는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업기획팀과 홍보관리팀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6명의 학우들이 모여 함께 공모전 준비에 나섰습니다. 역할분배부터 시작해 시나리오 작성과 검토, 촬영, 편집 등 모든 과정을 함께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거의 매주 회의와 공모전 관련 프로그램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팀원들과의 원활한 소통 및 협력이었습니다.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팀워크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으며, 다시 한번 대학혁신지원사업이 얼마나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지 깨달아 평범한 재학생으로서, 그리고 INNO 모니터링단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INNO 모니터링단을 통한 사업기획 및 운영 경험

이 외에도 다양한 홍보부스 및 행사를 진행하며 사업기획팀과 홍보관리팀의 협업으로 수차례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제 사고와 시야가 한층 넓어졌음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여러 부서와 협력하는 기회를 가지며, 축제 기획자라는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남은 INNO 모니터링단 활동에 최선을 다해, 더욱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나가고 싶습니다.

학생사례

Student case

GPS팀 멘토링



오지윤

조선대학교
기초교육대학 자유전공학부

참여 목적

자유전공학부로 들어온 저는 제가 생각했던 대학 생활과는 다른 면들이 많았습니다. 과 특성상 선배들이 없어 많은 정보를 얻기 힘들었고, 다른 과와 달리 자유전공학부 학생 모두가 한번에 모이는 경우는 사실상 많이 없었기 때문에 과대표를 맡고 있던 저는 어떤 활동을 해야 과 학생들과 더 친해지고, 소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비교과 프로그램인 “신입생 적응 지원 및 진로탐색을 위한 GPS팀 멘토링”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제가 했던 고민과 적합한 프로그램이라 생각해 GPS팀 멘토링 활동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참여 내용

GPS팀 멘토링은 교직원 한 명, 재학생 선배 멘토 한 명 그리고 신입생 멘티 다섯 명이 한 조가 되어 하나의 팀으로 활동을 합니다. GPS팀 멘토링의 특징은 신입생의 대학 생활 적응을 돋고 다양한 전공 탐색을 할 수 있는 신입생 맞춤형 비교과 프로그램입니다. 주어진 기간 내에 총 5회의 모임을 가지며 팀 별로 멘토링 활동을 진행합니다. 정기적으로 팀 활동을 하고 난 후, 팀 활동보고서를 회차별로 제출하고, 마지막으로 최종 활동보고서와 대학생활 로드맵이라는 성과물을 제출함으로써 다시 한번 프로그램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팀별 활동은 정해진 내용을 똑같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팀별로 멘티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 및 관심 분야 그리고 진로에 맞춰서 각자 다른 주제들로 활동을 이어갑니다. 저희 팀에서는 신입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을 수요조사하여 조선대학교 비교과 프로그램 알아보기, 희망학과 교수님과 면담회, 최종 보고서 내용 중 하나인 대학생활 로드맵 작성 방법 소개, 중간고사 과목별 시험문제 수합, 학과 선배에게 하고 싶은 질문 및 응답 등 여러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익했던 주제 몇 가지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조선대학교 비교과 프로그램 알아보기인데요. 저는 대학교에 들어오기 전부터 항상 해외로 나가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굉장히 가보고 싶었습니다. 해외연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화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면서 어떤 방법을 통해 가면 되는지, 그 경로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장기가 아닌 단기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단기 프로그램을 이용해 해외연수를 갈 것이라는 확고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1학기 중간고사를 치르고 난 후 과목별로 시험문제를 정리하는 활동입니다. 개인별로 시험을 본 중간고사 과목에 대해서 어떤 유형으로 나왔는지, 교수님의 성향을 파악해 보며 중간고사 문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혼자라면 귀찮아 하지 않았을 활동인데 팀별로 같이 수합하니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은 흔히 말하는 족보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는데 이렇게 수합된 정보들이 나중에 후배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 활동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던 희망 학과 교수님과 간담회 활동입니다. GPS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자유전공학부 학생이었기에 투표를 이용해 가장 많이 희망하는 학과의 교수님에게 면담을 요청해 간담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찰행정학과를 희망하여 경찰행정학과 교수님인 이 O 교수님과 면담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흔치 않은 기회라고 생각되어 제가 고민하고 있던 많은 부분이 해소된 아주 뜻깊고 기억에 남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을 통해 다시 한번 내가 왜 이 학과를 희망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조는 이 활동을 넘어서 멘토 선배님이 알고 있는

신입생 적응 지원 및 진로탐색을 위한 GPS팀 멘토링



자유전공학부에서 경찰행정학과로 들어간 선배님들의 도움을 받아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고 답을 얻는 활동도 진행하였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웬지 모를 든든함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후기

교직원, 선배님

멘토분들과 사람 대

사람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나라는 사람에

대해 더 깊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입생 적응 지원이라는 GPS팀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혼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할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활동이 저에게 준 가장 큰 깨달음은 바로 “인적 네트워크가 풍부해야 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단순히 강의를 듣고 얻는 지식, 정보와는 달리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알아가는 정보들이 훨씬 기억에도 잘 남고,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 활동들을 보게 되면 강사님 또는 선생님이 한 분야의 정보를 주는 활동들이 대부분인데, GPS팀 멘토링 프로그램은 교직원 멘토, 선배 멘토 그리고 멘티가 서로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교류하며 의사소통함으로써 쌍방향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다른 프로그램 활동과는 특별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에게 이 과의 단점이 뭐야? 라는 질문을 던지면 가장 먼저 들을 답이 소속감이 없는 것,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없다는 것 이 두 가지 답변이 가장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죠. 직속 선배가 없어 자유전공학부 안에 모르는 정보들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정해진 시간 안에 과 친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없을뿐더러,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 없다라는 것은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이라면 다들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에게 GPS 멘토링이 단순히 프로그램의 영역을 넘어 선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과였으면 쉽게 얻었을 정보들과 그 외의 또 다른 정보들,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만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얻고, 특히 교직원 멘토셨던 교원인사팀 이OO선생님, 선배님 멘토분의 집중케어를 받기도 하고, 사람 대 사람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나라는 사람에 대해 더 깊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직원 멘토, 선배 멘토와 함께 셋이 점심을 먹으며 앞으로의 미래에 관한 고민, 나의 진로 방향성에 관해 이야기를 하면서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선배와 선생님이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 비교과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신 조선대학교와 프로그램 담당자 선생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아주 뜻깊은 경험과 확고한 진로 방향을 설정해 준 GPS팀 프로그램은 학교 선배이자 인생 선배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자유전공학부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모든 학과 신입생들에게도 참여 기회가 주어져 많은 사람과 교류하고 소통하며 다양한 정보를 얻고 인맥을 쌓아가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합니다.

학생사례

Student case

서로에게 멘토가 되어주는 멘토링



정선영

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재학생

학교에 입학하기 전 한 공공기관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특성 상 외국인을 많이 마주하게 되었고, 이주 여성 등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사회복지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학교에 재학하던 중 우연히 ‘외국인 유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의 멘토를 모집한다는 공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23학년 2학기에 첫 멘토링 프로그램을 참여했습니다.

첫 멘토링 프로그램에서는 우즈베키스탄과 몽골 국적의 유학생 3명이 멘티로 매칭되었습니다. 영어 실력이 부족한 탓에 언어 장벽이 높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멘티를 만나면서 생각보다 많은 유학생들이 한국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장 막막하게 생각했던



●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는 멘티의
이야기를 들으며 멀리서만 보았던
유학생들의 생각과 고민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언어장벽 문제가 한 순간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활동을 진행하면서 한국어 회화 연습을 돋기 위해 일상적인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덕분에 멘티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오게 되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멘티, 세계적인 꿈을 가지고 여러 경험에 도전하고 있는 멘티,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는 멘티의 이야기를 들으며 멀리서만 보았던 유학생들의 생각과 고민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고정관념의 틀 속에서 외국인을 바라보고 있던 제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고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도리어 제 자신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이 멘토링 프로그램이 멘토가 멘티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 서로에게 도움과 힘이 되어주는 시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배우고 약 한 달 간의 멘토링 활동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멘티의 의견을 반영해

함께 한식을 먹기도 했고,

반대로 베트남 음식을

파는 식당에 방문해

저 또한 현지의 맛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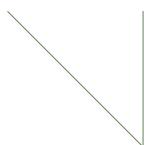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첫 멘토링 활동을 마치고 나서, 프로그램 담당 선생님의 권유로 두 번째 멘토링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번 멘티로 만났던 우즈베키스탄 학생과 다시 매칭이 되었고, 베트남에서 온 쌍둥이 언니와 함께 총 3명과 멘토링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 명 모두 이미 한국어가 능통했기 때문에 언어적인 지원보다는 학교와 지역에 적응하는 것에 대해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시간을 조정해 학교 축제에도 참여해보고, 또래 학생들이 자주 놀러가는 장소에 방문해 함께 구경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멘토링 활동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점을 보완점으로 삼아 멘티의 의견을 반영해 함께 한식을 먹기도 했고, 반대로 베트남 음식을 파는 식당에 방문해 저 또한 현지의 맛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맛집으로 유명한 식당에 가서 음식을 포장해 함께 피크닉을 가기도 하고, 제 집에 방문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고 서로의 어릴 적 사진을 구경하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 때 집들이 선물이라며 현지에서 부모님이 보내주신 선물을 품에 안고 왔던 멘티 언니의 모습이 아직도 가장 기억에 남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멘토링의 차원을 넘어 다양한 경험을 쌓고자 노력했고, 덕분에 멘토링 프로그램이 끝난 지금까지도 서로의 안부를 주기적으로 물으며 함께 밥을 먹는 친한 친구로서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게 되었지만, 사회의 시선은 아직 외국인 유학생에게 그리 따뜻하지 않다는 것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할 학생들에게 친절보다는 불편한 시선으로 다가오는 이들의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사회복지조사론’ 수업 과제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인식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 부정적인 인식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서 ‘외국인과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을 때, 외국인 유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인원이 51명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점차 외국인 유학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이 시기에, 그들이 한국에서도 한 명의 사람이자 친구, 동료로서 적응할 수 있도록 전국의 교내 멘토링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외국인 유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행사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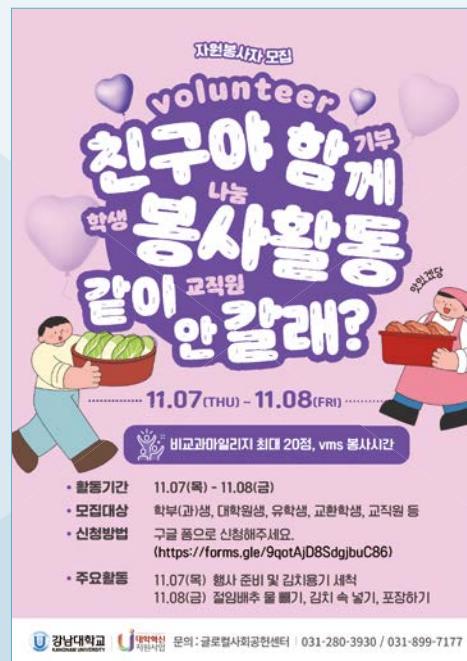
News of event

지역사회 연계 봉사활동 “2024 사랑의 김장 나눔”



이수연

강남대학교
글로컬사회공헌센터
팀원



강남대학교 글로컬사회공헌센터는 지난 11월 8일 강남대학교 샬롬관에서 ‘2024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2024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체험형 교육과정 개발의 일환으로 글로컬 공헌사업 확대 및 강남공동체 문화 조성 사업에 부합하는 학생들의 체험형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봉사 활동 프로그램이다.



강남대학교는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매년 소외계층 이웃들을 위한 김장 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 김장 김치 담그기 봉사활동에는 강남대학교 재학생 및 교직원, 그리고 구갈동 새마을부녀회 회원, 구갈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40여 명이 함께 했다. 이날 직접 담근 김장 김치 1,500kg은 5kg 단위로 포장한 뒤, 지역 내의 훌로 사는 어르신과 저소득층 가정, 기흥노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라온, 포곡지역아동센터, 보육원 등에 전달됐다.



이날 직접 담근 김장 김치 1,500kg은
5kg 단위로 포장한 뒤, 지역 내의 훌로 사는
어르신과 저소득층 가정, 기흥노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라온, 포곡지역아동센터,
보육원 등에 전달됐다.

지역사회 연계 봉사활동 “2024 사랑의 김장 나눔”

특히, 올해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에는 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의원과 지역 단체 분들도 함께 참여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강남대학교 글로컬사회공헌센터 송승민 센터장은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장 나눔 행사에 강남대학교 학생들과 지역 단체 분들의 귀한 손길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대학의 다양한 인적, 물적 지원 등을 활용한 공헌활동 및 지역발전을 위해 구갈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지역단체와 협력하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행사소식

News of event

2024-2 숙명행복성장주간 대학혁신단 부스 참여



문정은

숙명여자대학교
대학혁신단
직원



▲ 2024-2 숙명행복성장주간 부스행사 홍보 포스터

숙명여자대학교는 매학기 숙명행복성장주간을 지정하여 다양한 행정부서의 학생지원 프로그램과 제도를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대학혁신단은 2024-1학기에 이어 2024-2학기에 진행한 숙명행복성장주간에도 참여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홍보하고 대학혁신 스탬프 투어 및 룰렛 이벤트를 진행했다.

대학혁신 스템프 투어는 교내 곳곳에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개선된 학생지원공간을 방문하여 스템프를 찍는 형식으로, 학생들이 대학혁신지원사업을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학생들은 법학전문도서관, 스마트팜, AI JOB STUDIO, 미래창조관, 희망누리라운지, 숙명창작소 등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개선된 공간에 직접 방문하고 스템프를 찍으면서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스템프 투어를 완료하면 숙명 눈송이 아크릴 스탠드 증정과 함께 룰렛 이벤트를 통해 행사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 진행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은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개선된 공간을 직접 방문하여 학교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다는 후기를 전했다. 또한 대학혁신지원사업이 학교의 많은 공간 개선에 지원했음을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음을 언급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중 대표적인 학생 중심 프로그램인 숙명행복성장주간은 학생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소개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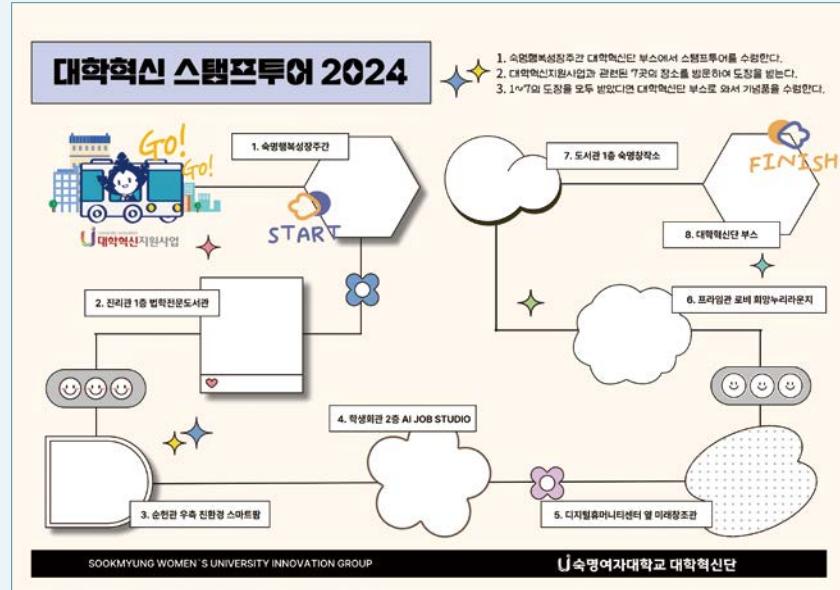


▲ 2024-2 숙명행복성장주간 부스 및 행사 진행 사진



2024-2

숙명행복성장주간 대학혁신 스템프 투어



숙명행복성장주간 <p>1. 숙명행복성장주간</p> <p>우리대학 학생들이 행복한 대학 생활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위치로 매 학기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행정부서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제도를 소개하여 적극적으로 학교생활을 돋는다.</p>	미래창조관 <p>200석 규모의 대형 강의실을 비롯하여, 총 5개 강의실을 갖춘 첨단 교육공간인 미래창조관이 개관했다. 제2창학캠퍼스 디지털휴머니티센터 옆에 위치하였으며,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강의실로 활용되고 있다.</p>
법학전문도서관 <p>학생들의 목적하고 인천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재단장한 진리관 1층 법학전문도서관은 총 340석의 열람실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며, 전 좌석을 콘센트를 이용할 수 있는 테이블과, 편한 의자로 교체하였다.</p>	희망누리라운지 <p>우리대학 장애학생들을 위한 온전한 편의공간 확보를 위해 프리입관 로비에 희망누리라운지를 새롭게 단장했다. 개인 사물함과 쇼케이스, 책상, 소파 등이 있어 필요한 학생들이 언제든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p>
친환경 스마트팜 <p>작물 재배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탄소 배출 없이(Carbon Free 100)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ESG 분야와 관련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모델로 기대받고 있다.</p>	숙명창작소 <p>창업지원과 창의/협업/교육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 숙명창작소는 숙명인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3D프린팅 개인작업 공간과 출력력을 견사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매 학기 3D프린팅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p>
AI JOB STUDIO <p>비대면 채용시장의 트렌드에 맞춰 마련된 AI잡스튜디오는 AI 스튜디오, 친환경상담실, 익렉트 강의실로 구성되어, 우리대학 학생들에게 필요한 취업 정보를 지원하고, 상담과 멘토링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다.</p>	대학혁신단 YouTube Instagram

SOOKMYUNG WOMEN'S UNIVERSITY INNOVATION GROUP

숙명여자대학교 대학혁신단

행사소식

News of event

2024 우석대 [Self-Mapping 공유 Day] 홍보부스



김소원

우석대학교
역량개발인증센터
담당

행사 개요

우석대학교 역량개발인증센터에서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매주 수요일 5~6교시를 [Self-Mapping Day]로 지정하였으며 약 150 여 가지의 프로그램을 개설 및 운영하여 학생들의 진로 및 적성을 찾고, 핵심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Self-Mapping Day] 프로그램에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자 “2024 Self-Mapping 공유 Day” 홍보부스를 개최하였으며 학생 스스로 참여함으로써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및 참여율 향상을 위해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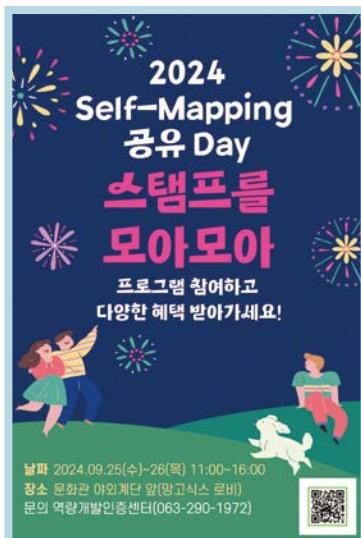


2024-2 스템프를 모아모아!

2024-2 [Self-Mapping 공유 Day] 홍보부스
운영기간 : 2024.09.25(수) ~ 09.26(목)
운영시간 : 11시 ~ 16시

★ 응모 자격
 참여 대상
 자격: 기초오토차별 기입
 상품: 비교과 품목물품
 2. 배포 후상
 자격: 7개 이상의 스템프를 모은 학생
 상품: 친구리, 카드내 충전지, 달묘 등
 주첨일자: 본당에서 축시 축청
 ★ 역량개발인증센터 카카오톡채널

I 주최 | 역량개발인증센터
참여 수원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함
학과 _____
학번 _____
이름 _____
연락처 _____
 역량개발인증센터



▲ Self-Mapping 공유 Day 홍보 포스터

“Self-Mapping 공유 Day”는 우석대학교 교육혁신본부와 대학일자리본부 등 총 8개 부서가 참여하여 학생들이 직접 해당 부스 및 부서에 방문하여 비교과 프로그램과 직무분석 및 채용 정보에 대한 설명 등 다양한 체험을 진행하고 스템프를 모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각 부서에서 다양하게 준비한 기념품과 혜택으로 학생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많은 학생이 비교과 프로그램에 다양하게 지원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비교과 프로그램과 대학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학생들이 학기 중에 적극적으로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프로그램 개발을 확대해 갈 예정이다.

■ 주요 내용

- 행사명: 2024 [Self-Mapping 공유 Day] 홍보부스
- 운영 기간: 2024년 9월 25일(수) ~ 9월 26일(목) 11:00~16:00
- 장소: 우석대학교 문화관 일대(전주 캠퍼스)
- 운영 내용
 - 학생이 비교과 운영 부서에 방문하여 비교과 활동 후 스템프를 득하는 방식으로 진행
 - 7개 이상 스템프를 모은 학생에게 기념품 추첨 제공 및 우석 챔프 마일리지 제공
 - 홍보부스 참여 인원: 1,311명

■ Self Mapping 공유 Day 참여부서

부서명	참여인원	세부 프로그램	활동 내용
역량개발 인증센터	217명	프로그램 홍보	- 비교과 운영 부서 역할 퀴즈 풀이 - 캠프 인증제 프로그램 홍보 및 안내
IR센터	336명	재학생 진단조사	- 우석 핵심역량 진단(W-CESA) - 교육만족도 조사 - 학부교육 실태조사(K-NSSE) - 대학 혁신역량 진단(UICA)
교수학습 지원센터	176명	학습검사 및 학습 상담	- W-MLCT(우석대다면적학습역량진단) 및 MLST II (학습전략) 온라인 검사 - 학습상담 - 2024학년도 학습법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 홍보	- 우석 컴퓨팅사고 창작대회 프로그램 홍보 - 우석 글쓰기 대회 프로그램 홍보 - 비교과 프로그램 신청 따라하기
교양교육 지원센터	146명	프로그램 홍보	- 기업, 직무분석, 전공 맞춤 채용정보 제공
대학 일자리본부	193명	프로그램 홍보 및 청년고용정책 안내	-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재맞고·청년고용정책 안내 및 홍보
진로취업 지원센터			- 장애대학생 보조공학 기자재 전시회 - 센터 역할 소개 및 지원 안내
장애인학생 지원센터	57명	보조공학기기 전시회 및 센터 소개	- 자신의 손바닥을 그린 그림에 최근 경험한 감정과 연관된 에피소드, 감정으로 기인한 욕구 등을 표현하는 프로그램
학생상담센터	186명	손바닥으로 보는 나의 감정	

● Self Mapping 공유 Day 흥보 부스 운영 프로그램



▲ 캠프 인증제 프로그램 소개



▲ 비교과 프로그램 퀴즈 풀이



▲ 직무분석 및 취업정보 소개



▲ 손바닥으로 보는 나의 감정



▲ W-MLCT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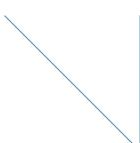
▲ 우석 핵심역량 진단(W-CESA)

2024 우석대

[Self-Mapping

공유 Day]

홍보부스



성과 및 분석

- 홍보부스 참여율 증가: 전년 대비 홍보부스 참여 인원 149명 증가,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
- 신규 프로그램 홍보: ‘교과-비교과 인증제’ 프로그램 신청 인원 증가,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제고 효과 (*24학년도 1학기: 59명 → 2학기: 306명)
- 비교과 카카오톡 채널 신설: 교내 비교과 정보 및 소식 공유, 프로그램 홍보 (*채널 가입 인원: 364명)

향후 계획

- 기업과 연계한 규모 확대: KT&G 상상유니브와 협업을 통해 행사 운영에 필요한 자원 확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기획
- 총학생회와 협력한 행사 운영: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동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교내 소통 채널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홍보할 예정
- 참여 혜택 다양화: 사전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기념품 종류 확대,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

행사소식

News of event

조선대학교, 2024 하반기 대학혁신지원사업 5개 권역 대학 간 공유·협력 혁신포럼 개최



윤경원

조선대학교
대학혁신사업지원단
행정지원팀
팀장

■ 추진 배경 및 목적

- 대학혁신지원사업 우수 성과 사례공유
- 참여대학 교류를 통한 우수 성과 대외 확산

■ 혁신포럼 개요

- 행사명 : 2004학년도 하반기 5개 권역 대학 간
공유 및 협력 기반 공동 혁신포럼
- 일 시 : 2024년 11월 7일(목) ~ 11월 8일(금)
- 장 소 : 라마다플라자 충장호텔
- 주 제 : 2주기 대학혁신 성과 공유 및 향후
발전방향 모색



 혁신포럼 순서

시간	내용	비고
11. 7.(목) 1일차		
15:00(15')	개회 및 내빈 소개	대학혁신사업지원단 교육부단장 강희조
15:15(5')	환영사	조선대학교 총장 김춘성
15:20(10')	기념촬영	
15:30(30')	계명대학교 발표 및 질의응답 : 유연한 학사운영 및 수업혁신 방안	계명대학교 교육혁신처부처장 김경호
16:00(30')	덕성여자대학교 발표 및 질의응답 : 전면자유전공제 기반 미래 혁신 융합 인재 양성 모델	덕성여자대학교 교육혁신성과관리센터장 이용민
16:30(10')	휴식시간	
16:40(30')	동의대학교 발표 및 질의응답 : 대학혁신사업 운영 성과와 방향	동의대학교 대학문화혁신센터소장 엄영호
17:10(30')	순천향대학교 발표 및 질의응답 : 2주기 대학혁신 우수성과 공유 및 확산	순천향대학교 대학혁신추진부단장 박대균
17:40(10')	휴식시간	
17:50(30')	조선대학교 발표 및 질의응답 : 2주기 혁신사업 대표성과와 지속발전 전략	조선대학교 대학정책연구센터(IR센터) 특임교수 강동희
18:20(70')	저녁 만찬	
19:30(80')	5개 권역 대학 간 교류	
11. 8.(금) 2일차		
10:30(60')	3주기 사업발전 방향 및 향후 협의체 추진계획 토의	직위별 분임토의
11:30(30')	조선대학교 캠퍼스 투어	
12:00(60')	점심 및 폐회	

■ 추진성과

- 사업성과 확산 및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대비

교내·외 구성원과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내용 및 추진 성과 공유를 통해 사업 성과 확산

- 우수 성과 대외 확산

참여 대학 간 교류를 통해 우리 대학 사업 성과를 대외로 확산



포럼 진행 사진



조선대학교,
2024 하반기
대학혁신지원사업
5개 권역 대학 간
공유·협력
혁신포럼 개최



행사소식

News of event

지역사회 봉사 프로젝트: 성북 청소년 축제 Y.O.P(Youth Only Project) 페스티벌 ESG 부스 운영



자수빈

한국성서대학교
혁신사업단
직원

개요

- 청소년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성북 청소년 축제 Y.O.P(Youth Only Project) 페스티벌 내에 한국성서대학교 'KBU 임팩트 봉사단' 5인이 청소년 대상으로 ESG 부스를 운영
- ESG 퀴즈 풀고 간식 뽑기와 석고방향제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생들에게 ESG의 개념을 이해시키고 석고방향제를 만들며 ESG를 직접 실천하게 함으로써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알게 함

행사 일시

- 2024.11.2.(토) 13:00~18:00

행사 장소

- 시립성북청소년센터 내 부스



▲ 한국성서대학교 'KBU 임팩트 봉사단'



ESG 부스 운영 내용

- 부스명 : ESG 섞고 놀자
- 봉사인원 : 한국성서대학교 'KBU 임팩트 봉사단' 간호학과 학생 5명
- 부스 참여인원 : 청소년 84명
- 부스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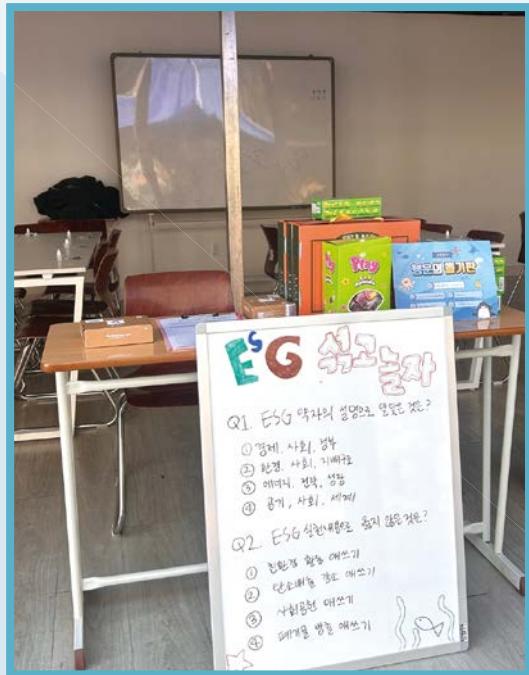
'ESG 섞고 놀자' 부스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명	운영 내용	비고
ESG 퀴즈 풀고 뽑기하자!	ESG와 관련된 퀴즈 2문제를 풀이한 후 정답자에게는 뽑기권 2개, 오답자에게는 뽑기권 1개를 제공하여 뽑기의 기회를 제공함. 등수에 따라 간식을 분배하여 제공	1등 : 1명 2등 : 2명 3등 : 6명 4, 5등 : 나머지
석고방향제 만들기	1인 1키트를 제공하여 봉사자의 안내에 따라 나만의 석고방향제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짐	

■ ESG 부스 운영 성과

- 단시간에 84명의 청소년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호응이 매우 좋았음
- ESG와 관련된 간단한 퀴즈를 풀고 간식을 뽑는 이벤트로 많은 청소년들이 ESG의 개념에 대해 쉽게 접할 수 있게끔 함
- 나만의 석고방향제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직접 ESG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사고를 갖게 함

ESG 석고놀자



지역사회

봉사 프로젝트:

성북 청소년 축제

Y.O.P(Youth Only Project)

페스티벌

ESG 부스 운영



▲ 참여자 청소년이 만든 석고병향제 사진

2024 대학혁신지원사업

| 채의자워크숍 |



▲ 내빈 단체사진



▲ 개회사_ 송창수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회장



▲ 축사_ 문선영 한국연구재단 대학교육실장

초청특강 I



▲ 1-1. 김현영 중앙RISE위원장, 前 강원대학교 총장



▲ 1-2. 김현영 중앙RISE위원장, 前 강원대학교 총장

2024 대학혁신지원사업 | 책임자워크숍 |



▲ 등록 데스크 운영



▲ Q&A-1.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 Q&A-2.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초청특강 II



▲ 2-1. 하연섭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부총장



▲ 2-2. 하연섭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부총장

개회식



▲ 개회사. 송창수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장



▲ 축사1.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대독)



▲ 축사2. 박상철 호남대학교 총장



▲ 축사3. 문선영 한국연구재단 대학교육실장



▲ 영상축사.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 표창 수여식

2024 대학혁신포럼

기조강연 /
정책연구과제 발표



교육 Session 혁신 사례 발표



▲ 사례발표. 김춘식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총장



▲ 토론. 좌장_박주식(울산대), 토론_이영호(계명대)&최선욱(경남대)



▲ 발표. 최화영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훈련기관평가센터 과장

2024 대학혁신포럼

분과세션

1-학사제도 유연화



▲ 사례발표1. 김도윤(포항공대)



▲ 사례발표2. 임연규(광운대)



▲ 사례발표3. 방담이(가톨릭대)



▲ 사례발표4. 이용민(덕성여대)



▲ 사례발표5. 김선영(경남대)



▲ 사례발표6. 이태희(한양대)



▲ 사례발표7. 황영아(한성대)

분과세션

2-지·산·학 연계 및 대학 간 공유·협력



▲ 사례발표1. 강석중(인제대)



▲ 사례발표2. 이유은(한림대)



▲ 사례발표3. 김혜경(백석대)



▲ 사례발표4. 김숙정(호남대)



▲ 사례발표5. 정재민(추계예대)



▲ 사례발표6. 최보라(서원대)

2024 대학혁신포럼

분과세션

3-학생지원체계 개선



▲ 사례발표1. 심태은(동국대)



▲ 사례발표2. 장연하(인하대)



▲ 사례발표3. 김창희(연세대 미래캠)



▲ 사례발표4. 김태훈(나사렛대)



▲ 사례발표5. 윤현석(광주여대)



▲ 사례발표6. 이윤선(원광대)

분과세션

4-미래교육 / 교육의 질 관리



▲ 사례발표1. 임병학(부산외대)



▲ 사례발표2. 김호엽(대구대)



▲ 사례발표3. 이상선(한국기술교육대)



▲ 사례발표4. 최진숙(호원대)



▲ 사례발표5. 허정필(울산대)



▲ 사례발표6. 이윤선(원광대)

2024 대학혁신포럼

분과세션

5-교수학습지원



▲ 사례발표1. 박선향(경성대)



▲ 사례발표2. 최경식(목원대)



▲ 사례발표3. 이윤진(안양대)



▲ 사례발표4. 유영진(배재대)



▲ 사례발표5. 손미혜(국민대)



▲ 사례발표6. 신하영(세명대)

분과세션

6-지·산·학 연계 및 대학 간 공유·협력/ 학생지원체계 개선



▲ 사례발표1. 김혜윤(창신대)



▲ 사례발표2. 백승환(대구가톨릭대)



▲ 사례발표3. 정대근(광주대)



▲ 사례발표4. 나기희(조선대)



▲ 사례발표5. 최은희(한국성서대)



▲ 사례발표6. 강현식(건양대)

2024 대학혁신포럼

대학혁신지원사업 참여학생 사례영상 경진대회



▲ 참가팀1. KHU토벤(경희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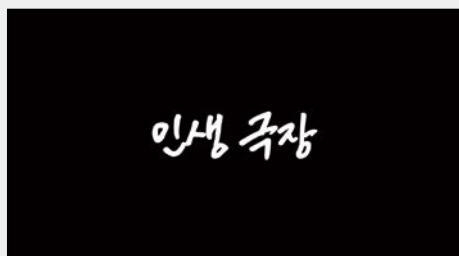
▲ 참가팀5. 민태욱(성균관대)



▲ 참가팀2. NEXT STEP(원광대)



▲ 참가팀6. 홈코밍(한양대)



▲ 참가팀3. 타이타닉(한국외대)



▲ 참가팀7. 파동(연세대)



▲ 참가팀4. 쿠양타이거즈(고려대)



▲ 참가팀8. 하모니(추계예대)

2024 대학혁신포럼

폐회식



▲ 폐회사. 송창수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장

경진대회 시상식



▲ 장려상



▲ 우수상



▲ 최우수상



▲ 대상



UNIVERSITY INNOVATION SUPPORT PROJECT NEWSLETTER



